한국사회 이해

(생활영역)

하 나 원

책을 펴내면서

50년이 넘는 긴 분단의 세월로 인하여 남과 북의 주민은 같은 말과 글을 쓰고 있으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이 다르고 언어의 이질화도 심화되는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경제난 등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중 상당수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오고 있으나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되풀이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원은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하루빨리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과 소양교육은 물론, 일반 서민의 일상생활 체험, 산업체 시찰, 생활요리 및 운전, 직업안내 및 기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원에서는 그동안의 사회적응교육 실시경험 및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토대로 교육생에게 유익하고 교육생의 수준에 맞으며 교육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편집한 하나원 교육생의 우리사회 이해를 위한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내용은 남북언어비교·외래어·한자 등 언어적응 및 이해를 위한 언어영역,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역사 등 각 분야별 이해를 돕기 위한 인문사회 영역, 실생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생활영역 등 3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우리사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교육생을 위해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들을 많이 담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만 빠진 내용도 많고 좀더 알차게 꾸몄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계속 시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니 부디 많은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낯선 사회에서 새롭게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원고집필과 교정 편집 등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 12. 31

하나원장 김 중 태

목 차

제 1 장 전통문화와 국가상징

1. 국기 7
2. 국가와 국화 9
3. 한국의 전통 11
4. 국어 13
5. 민족중흥 14
6. 우리전통사상 16
7. 시감상 18
8. 수신제가 20
9. 고사성어 23
10. 속담 24

제 2 장 합리적인 소비생활

1.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26
2.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28
3. 소비의 과정 32
4. 소비생활계획 35
5. 소비자운동 37

제 3 장 생활예절

1. 예절이란 무엇인가? 46
2. 예절의 인륜성, 문화적 특수성, 실천적 당위성 47

3. 예절의 정신(동양+서양) 47
4. 생활속의 예의실천 48
<부록> 예절생활 65

제4장 삶의 철학과 생의 설계
1. 생의 의미와 계속성 76
2. 생애 목표 설정과 실천 80
3. 인류에 공헌하는 생의 운영 84
4. 생애 설계도 87

제5장 법과 시민생활
1. 이론적 설명 90
2.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91
3. 구체적 사례 92
4. 생활법률 94

제6장 여성의 지위
1. 한국의 여성지위 지수 105
2. 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105
3. 학교에서의 여성교육 변화 107
4. 직장에서의 여성문제 107
5. 정치에서의 여성의 지위 108
6. 법에서의 여성의 지위 109
7.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 110

제7장 이성과 결혼
1. 이성의 발달 111
2. 사랑의 발달 112

3. 결혼제도 115
4. 결혼생활의 적응 117
5. 애정표현 방법 118
<부록> 성폭력 120

제8장 일반상식
1. 가전제품 사용 130
2. 교통수단 이용 136
3. 동사무소·구청민원 138
4. 국제전화 이용 145
5. 미용실 이용 147
6. 쇼핑 148
7. 우체국 이용 151
8. 대중목욕탕 이용 151
9. 분리수거와 쓰레기봉투 사용 152
10. 은행 이용 153
11. 병원약국 이용 155
12. 화장품 이용 156
13. 음식점 이용 157

제9장 생활의 지혜
1. 살림의 지혜 159
2. 조리의 지혜 167
3. 재활용 지혜 171
4. 집에서 하는 고장수리법 172
5. 응급처치 174

제 1 장 전통문화와 국가상징

1. 국기(國旗)

1) 명칭 : 태극기(太極旗)

- 태극 : 만물의 근본 이치와 우리의 얼을 나타내고 있다.

2) 태극의 역사

(1) 최초로 사용 : 1882년 일본 수신사로 가던 박영호(제물포조약)

(2) 최초로 공인 : 고종 때 공인, 1883년 1월 27일 공포하여 오늘날까지 사용

3) 태극기의 원리

(1) 태극: 우주의 생성원리(청홍)

(2) 사괘 : 건곤감리(乾坤坎離)(천지일월, 동서남북, 인의예지)

4) 태극기의 5대정신

(1) 흰바탕 □ - 순결, 평화

(2) 원주 ○ - 단일(우주)

(3) 태극 ◒ - 창조(음양)

(4) 건곤 ☰☷ - 무궁(천지)

(5) 이감 ☲☵ - 광명(일월)

5) 태극기의 제작

(1) 깃면의 비율 - 3 : 2

(2) 태극지름 - 깃면 너비의 1/2

(3) 깃면의 너비 - 태극지름의 2배

(4) 깃면의 길이 - 태극지름의 3배

(5) 괘의 너비 - 태극지름의 1/3

(6) 태극과 괘 사이 - 태극지름의 1/4

(7) 효의 너비 - 괘너비의 1/4

(8) 효와 효 사이 - 효너비의 1/2

(9) 깃봉의 지름 - 깃면 너비의 1/2

(10) 국기의 호수 - 9종 : 특호, 1·2호(옥외 게양), 3·4·5호(가정 게양), 6·7호(실내 게양), 8호(수기)

6)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받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 국기 게양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비가 내릴 때
2. 여러 나라 국기와 게양할 때
3. 실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어떻게 하는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 꽃 좋고 열매 많이 맺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할세 내 이루어 바다에까지 가느니

2. 국가와 국화

1) 애국가(愛國歌) 교육

(1) 애국가

우리민족의 애국 정신을 담은 애국가는 끈기와 소망이 담겨 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부를 때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애국가가 연주되면 바른 자세로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제창하거나 듣는다.

- 작곡가 : 안익태
- 박자 : 4/4
- 장조 : 가장조(A장조) - 의식할 때 사장조 (G장조)
- 구성 : 4절 16마디

2) 애국가 1절 가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3) 애국가 4절에 나타난 정신

1절 : 영원한 나라
2절 : 꿋꿋한 자세와 정신
3절 : 일편단심
4절 : 충성심

4) 틀리기 쉬운 가사어

1절 : 하나님(×) → 하느님(○), 보호(×) → 보우(○)
화려한 강산(×) → 화려강산(○), 보존하세(×) → 보전하세(○)
2절 : 바람 소리(×) → 바람 서리(○)

3절 : 광할한데(×) → 공활한데(○)

2) 국화교육(國花敎育)

(1) 무궁화(無窮花)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으며 우리민족의 특징인 근면과 창조, 은근과 끈기, 지조와 겸허, 개성과 협동, 인내와 적응력을 나타낸다.

ㅇ 원산지 - 시리아, 중국, 영국

ㅇ 과명 - 아욱과, 내한성(耐寒性) 권목

ㅇ 개화기 - 7~10월, 100일 이상 개화

(2) 우리나라를 근화향(槿花鄕)이라 부른다.

(3) 무궁화 동산 사건

- 한서 남궁억 선생

학습문제

1. 애국가 2, 3, 4절을 써 보자.
2. 무궁화를 영어식으로 표현해보자.
3. 안익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4. 대한민국을 한자로 써 보자.

장검을 빼어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일엽제잠이 호월에 잠겼애라
언제나 남북풍진을 헤쳐 볼고 하노라

- 남이(南怡)-

3. 한국의 전통

1) 우리나라

(1) 국토 : 면적은 222.231㎢(약 22만㎢)로서 산지가 약 7할이며, 서쪽과 남쪽에 평야가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서 북위 33°~43°,동경 124°~132°에 위치해 있다. 4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로 일년 중 거의 맑은 하늘과 물 맑고 아름다운 땅을 가진 나라이다.

(2) 국민 : 황색인종으로서 한 핏줄로 이어진 단일민족이다. 평등과 정의에 입각하여 사물의 판단이 빠르고 양심적인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창조적이고 평화적이며 예의 바른 민족이다.

2) 인간존중(人間尊重)사상

(1) 건국이념의 공통점 : 인간존중사상

- 고조선의 건국이념 : 홍익인간, 제세이화, 단군 왕검
- 고구려의 건국이념 : 동명왕의 유언에서 이도여치(以道與治)
- 신라의 건국이념 : 금탑(金塔)사상
- 조선의 건국이념 : 금척(金尺)사상
- 대한민국 건국이념 :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3) 민본사상(民本思想)

(1) 뜻 :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사상

(2) 검토 : 신라의 화백 제도, 고려의 도평의 제도, 조선의 의정부 제도, 암행어사 제도, 신문고 제도

(3) 구체적인 표현

- 민본의식 형성기 : 고려말 - 조선초

· 민심즉천심(民心卽天心) : 왕도정치사상

· 정도전 : 왕도사상

· 조광조 : 도학정치, 향약보급

· 이율곡 : 여론정치, 백성의 뜻에 따르면 국시는 바르게 된다.

· 정약용 : 목민사상, 주권재민사상

4) 협동단결(協同團結)

(1)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2) 대표적인 예

· 계 :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체

· 두레 : 농촌의 농번기 운영, 농촌의 조직체(계의 일종)

· 품앗이 : 일시적인 노동교환 조직

· 향약 :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 새마을 운동의 이념 : 근면, 자조, 협동

익힘문제

1. 백의민족의 뜻을 알아보자.
2. 화랑도(花郎徒)에 대하여 알아보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이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 양사언 -

4. 국어(國語)

1) 우리의 글(訓民正音)

(1) 뜻 :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2) 창제 : 1443년

(3) 반포 : 1446년

(4) 한글자모 : - 제작당시 28자 - 모음 11, 자음 17

- 현재 24자(없어진 글자 : ㆆㅿㆁ)

ㅇ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ㅇ 자음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5) 최초의 작품 : 용비어천가

(6) 한글창제에 노력한 집단 : 집현전(반대자:최만리)

2) 훈민정음 서문(序文)의 3대 정신

(1) 자주정신 (2) 애민정신 (3) 실용주의정신

>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 流通故 愚民有所欲言
> 終不得 伸其情者 多矣 予爲此 憫然 新制二十八字
> 欲使人人 易習 便於 日用耳

3) 표준말 제정

(1) 지리적 조건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서울

(2) 계급적 조건 :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3) 시대적 조건 : 현재

4) 훈민정음 명칭변화

훈민정음 → 정음 → 언문 → 국문 → 한글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로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학습문제

1. 이두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세종대왕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자.
3. 집현전에 대하여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자.
4. 우리 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5. 민족중흥

1) 민족중흥(民族中興)

(1) 민족의 개념

① 문화공동체(文化共同體)

②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

③ 혈연공동체(血緣共同體)

④ 지연공동체(地緣共同體)

(2) 민족구성요소

① 객관적 요소 : 문화, 혈연, 지연, 역사, 신화, 전설

② 주관적 요소 : 민족의식, 공동체의식

(3) 시대별 민족사명

① 신라시대 : 삼국통일

② 고려시대 : 고구려의 영토회복

③ 일제시대 : 주권회복

④ 오늘날 : 남북통일, 민족중흥

(4) 국력(國力)

국력의 3대 요소 : 국방력, 경제력, 정신력

2) 민주주의(民主主義)

(1) 민주주의의 개념

① 어원(語源) : 데모스(인민(人民), 민중(民衆), 국민(國民)), 크라티아(지배권(支配權)), Democracy

② 최초의 언급자 : 헤로도투스

③ 링컨 :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정치

(2)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① 인간존중 : 최고의 이념

② 자유, 평등 : 민주주의 양대 가치

가) 자유

- 소극적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적극적 자유 :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자유는 곧 자율이다.

나) 평등

- 법 앞에 평등하다.
- 신 앞에 평등하다.
- 남녀가 평등하다.
-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

무제한적인 자유와 획일적인 평등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두 가치는 언제나 상호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3) 민주주의 3대 전제조건

① 개인주의 :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에 가치

② 자아실현 : 개개인의 자아 실현

③ 상대주의, 합리성 :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4) 민주주의 기본원리

① 국민 주권의 원리 : 민주정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

② 국민 자치의 원리

③ 권력 분립의 원리 : 입법, 행정, 사법

④ 법치주의의 원리

⑤ 다수결의 원리 : 현대 대중민주주의 정치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원리이나 논쟁이 많다.

학습문제

1. 삼권분립(三權分立)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나라 사랑의 기본정신을 정리하여 말해 보자.

>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 긴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애라
>
> - 김종서 -

6. 우리 전통사상

1) 삼강오륜(三綱五倫)

(1) 삼강(三綱)

ㅇ 부위자강(父爲子綱)

ㅇ 군위신강(君爲臣綱)

ㅇ 부위부강(夫爲婦綱)

(2) 오륜(五倫)

ㅇ 부자유친(父子有親)

ㅇ 군신유의(君臣有義)

ㅇ 부부유별(夫婦有別)

ㅇ 장유유서(長幼有序)

ㅇ 붕우유신(朋友有信)

2) 화랑도

(1) 낭가(娘家)사상 : 신채호, 조선을 조선되게 하는 자주적인 국풍이었다.

ㅇ 화랑정신의 구조 : 풍류사상 + 유불선사상 = 융화사상

ㅇ 기본정신

- 세속오계(원강법사)
- 사군이충(事君以忠)
- 사친이효(事親以孝)
- 교우이신(交友以信)
- 임전무퇴(臨戰無退)
- 살생유택(殺生有擇)

(2) 삼의(三儀)사상 : 삼덕사상 (응엄이 헌강왕에게 바치는 글)

ㅇ겸허(謙虛), 순후(醇厚), 검소(儉素)

(3) 화랑의 3대 핵심사상 : 애향(愛鄕), 애족(愛族), 애국(愛國)

ㅇ 화랑도의 성격: 수양단체, 전사단체, 종교단체

ㅇ 화랑도를 풍류도라 지칭한 이는 최치원

3) 孝(효) : 孝是行人之本(효시행인지본) 百行之本(백행지본)

ㅇ忠(충) : 盡己(진기)

약습문제

1. 修身齊家(수신제가) 治國平天下(치국평천하)의 뜻을 알아보자.
2. 七顚八起(칠전팔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3. 易地思之(역지사지)란 말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
> - 이순신 -

7. 시(詩) 감상

1) 가는 길(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둘에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저귑니다

앞 강물 뒤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 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니다려

2) 서시(序詩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3) 꽃(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1. 내가 알고 있는 시를 한 수 써 보자.
2. 나라 사랑이란 제목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자.
3. 동시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난것가 아모리 푸새 옛 것인들 긔 뉘 따헤 났다니

8. 수신제가(修身齊家)

心不在焉(심불재언)
視而不見(시이불견)
聽而不聞(청이불문)
食而不知其味(식이부지기미)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克己復禮爲仁(극기복례위인)
非禮勿視(비례물시)
非禮勿聽(비례물청)
非禮勿言(비례물언)
非禮勿動(비례물동)
나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그것이 인이 된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 치국평천하)
修己治人(수기치인)
忠孝家傳(충효가전)
敬老孝親(경로효친)
먼저 자신을 잘 수양하고 가정을 잘 정제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자신을 수양하고 사람을 다스린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의 전통을 전한다.
늙은 분에게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한다.

溫故知新(온고지신)

兄弟友愛(형제우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형제 간에 화목하고 늘 사랑스럽게 지낸다.

松茂栢悅(송무백열)

仁義禮智(인의예지)

소나무가 풍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친구가 잘 되면 나도 매우 기쁘다).

어질고 옳고 예절(질서)을 숭상하고 지혜롭다.

父母(부모) 兄弟(형제) 姉妹(자매) 男妹(남매) 三寸(삼촌) 叔父(숙부) 伯父(백부) 仲父(중부) 親家(친가) 祖父(조부) 曾祖(증조) 高祖(고조) 姑母(고모) 姨母(이모) 省墓(성묘) 歲拜(세배) 祝文(축문) 紙榜(지방)

학습문제

1. 부자유친의 뜻을 알아보자.
2.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보자.
3. 족보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커든 짐을조차 지실까.

9. 고사성어(古事成語)

刻舟求劍(각주구검)	結草報恩(결초보은)
竹馬故友(죽마고우)	焚書坑儒(분서갱유)
管鮑之交(관포지교)	內憂外患(내우외환)
糟糠之妻(조강지처)	九死一生(구사일생)
愚公移山(우공이산)	首邱初心(수구초심)
曲學阿世(곡학아세)	後生可畏(후생가외)
勸善懲惡(권선징악)	塞翁之馬(새옹지마)
朝三暮四(조삼모사)	錦衣夜行(금의야행)
克己復禮(극기복례)	桑田碧海(상전벽해)
大器晩成(대기만성)	天高馬肥(천고마비)
靑雲之志(청운지지)	三人成虎(삼인성호)
實事求是(실사구시)	他山之石(타산지석)
孟母三遷(맹모삼천)	改過遷善(개과천선)
靑出於藍(청출어람)	衆口難防(중구난방)
以心傳心(이심전심)	殺身成仁(살신성인)
拔本塞源(발본색원)	背水之陣(배수지진)
多多益善(다다익선)	仰天大笑(앙천대소)
口尙乳臭(구상유취)	伯仲之勢(백중지세)
龍頭蛇尾(용두사미)	同病相憐(동병상련)
朝令暮改(조령모개)	門前成市(문전성시)
君子三樂(군자삼락)	擧案齊眉(거안제미)
溫故知新(온고지신)	天衣無縫(천의무봉)
四面楚歌(사면초가)	馬耳東風(마이동풍)
大同小異(대동소이)	漁父之利(어부지리)
井底之蛙(정저지와)	

傾國之色(경국지색)	聞一知十(문일지십)
琴瑟相和(금슬상화)	螢雪之功(형설지공)
換骨奪胎(환골탈태)	兎死拘烹(토사구팽)

학습문제

1. 五十步百步(오십보백보)란 무슨 뜻인가?
2. 識字憂患(식자우환)이란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아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정철 -

10. 속담(俗談)

1)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2)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3) 가게 기둥에 입춘
4)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5)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한다.
6) 등치고 간 낸다.
7) 배먹고 이 닦기
8) 걷기도 전에 뛴다.
9)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10)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11)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12) 甘呑苦吐(감탄고토)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13) 堂狗風月(당구풍월) :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14) 烏飛梨落(오비이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15) 見蚊拔劍(견문발검) :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

16) 面從腹背(면종복배)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한다

17) 漢江投石(한강투석) : 한강에 돌던지기(아무런 소용없다의 뜻)

18)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19) 목구멍이 포도청

20) 내코가 석자

학습문제

1. 無虎洞中(무호동중) 貍作虎(이작호)란 무슨 뜻인가?
2. 속담 하나씩 써 보자.
3. 서울이 들어 가는 속담을 하나 써 보자.
4. 미꾸라지가 들어간 속담을 만들어 보자.
5. 牛耳讀經(우이독경)

제 2 장 합리적인 소비생활

1.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북한이탈주민 62%가 남한소비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이강현, 소비자보호원). 그 이유는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과 경험부족 84.6%, 표시, 광고에 대한 이해부족 46.2%, 상표 식별의 어려움 30.8%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책임을 알고 남한사회 소비생활의 적응을 원만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강의는 준비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소비생활적응을 위하여서는 우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교,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소비와 시장이 중시되며 생산요소는 사유화할 수 있고 개인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구조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과정과 계획을 중시하고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는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교육, 의료, 주택, 식생활, 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국가로부터 주어지며 국민은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소비는 무시되며 집단적 소비, 사회적 소비가 이루어지며 가격구조도 정부의 통제 아래 책정된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화되어 있고 개인적 소비가 불용(不容)되며 국가에 의해 의식주가 배급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소비와 시장이 중요시되고 생산요소는 사유화되어 있으며 개인적 소비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와 같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1:1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자율적 구매결정에 의한 소비생활의 기회를 대부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의 돈 단위(북한의 돈 단위는 1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백원, 5백원으로 남한은 1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달라 남한 돈 단위의 개념이 잘 안잡혀 당혹스럽고 이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급받아 살아왔으므로 특별히 돈의 가치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돈을 버는 방법에도 미숙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가 실시되므로 사회구성원인 모든 국민은 상호간 경쟁이 배제된 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이 주어지고 식량, 의류의 무상배급,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주어지므로 배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한 돈의 필요성, 소비의 중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경쟁의 원리, 적자생존의 원리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돈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황금 지상주의로 타락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생산성 없는 노인, 장애인을 경시하는 풍조, 기업의 능력없는 사원 감원과 구조조정 등은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은 1인이 2배, 3배 일을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실업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고 그 외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 양산해내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떠 안아 맡아야 하는 사회구조로 가고 있다.

학교사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인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교육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지 않고 오직 성적위주와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일찍부터 낙오자로 만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인의 소중한 능력과 잠재력은 사장되어 국가인력의 손실을 가져오고 이런 상황은 청소년의 방황과 비행, 범죄로 이어져 혼란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열에서 낙오된 자는 동정받지 못하고 이 사회가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남한사회에서 국민의 복지는 국가가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그것은 아

주 미약한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적절한 소비, 그리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지키는 것까지 소비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과 복지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소비자의 역할은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소비자보호법 제4조)고 제시하고 있는 대로 우리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2.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소비자문제의 추세는 물질적인 경제개념의 소비자로부터 점차 철학적인 개념의 소비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추세이다. 구매자로서의 소비자보다는 생활 터전을 지키는 소비자로서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책임있는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소비자, 함께 사는 소비자, 미래를 보는 소비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1)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생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품과 서비

스는 제조, 판매되어서는 안된다. 소비자는 안전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의심이 가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 정보를 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허위, 과장의 상품정보, 건전한 소비생활을 방해하는 정보와 선전광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업 관습으로부터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이익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히 받아야 한다.

(3) 선택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거래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부당한 피해를 보기 쉽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가 동시에 모두 제공되는 것이 선택권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공급을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4) 의사가 반영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리고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의 모든 의견은 현재의 불편과 불공평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는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5) 보상을 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이다.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거래관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 피해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있다. 소비자는 48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소비자는 폭넓은 정보를 갖고 소비생활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거래방법, 상품내용,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상품 선택방법 등 소비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경제생활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어릴 때부터 필수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7)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요소이다. 우리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과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소음공해, 흡연공해의 추방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8) 조직할 권리

소비자 개개인은 대량생산 대량판매 체제의 기업에 비해 무력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실현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힘을 모아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해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보호법 제4조에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소비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와 함께 여기에 따르는 책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

의 책임의식과 같다. 소비자의 책임은 1980년 아세안(ASEAN) 소비자보호 선언 이후 IOCU에서 채택하였으며 그 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다.

(1)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유용성, 가격, 품질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쓰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 보다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이다.

(2) 참여에 대한 책임

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거래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따지고 행동할 책임이다.

(3) 사회적 책임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부적절한 소비가 다른 사람들 특히 시골 또는 다른 나라의 무력하고 불리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는지 인식할 책임이다.

(4)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

우리의 소비가 환경을 어떻게 오염,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책임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땅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5) 단결에 대한 책임

소비자의 연대감, 조직화 없이는 소비자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각 개인의 소비자는 함께 힘을 합할 책임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단체를 자주 이용하고 단체가 많은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책임이다. 소비자 조직은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3. 소비의 과정

1) 물품 및 서비스 선택

물품과 용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소비자 단체의 정보 활용, 지역부녀회, 반상회 등 이웃을 통한 공동구매, 지역사회의 재활용품 센터 이용, 각 학교축제 바자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의 소비자 단체에서는 같은 상품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품질과 가격비교,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촌생산품을 이웃과 공동구매 할 경우 생산지인 농촌과 직거래를 하면 농부와 소비자 이익이 증대되고 유통상인 등 중간마진이 감소하고 교통량을 줄이는 등 부수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계약재배까지로 확대되어 실시할 수 있다.

재활용품센터나 바자회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물품을 살 수 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의류, 생활필수품 등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 여기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책임을 수행하는 한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꼭 사야하는 물품을 메모해 놓았다가 많이 보고 듣고 정보를 종합해 본 이후 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구입

물품과 용역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은 '꼭 필요한가?', '능력에 맞는가?', '반품과 환불은 가능한가?', '아프터서비스는 잘 지원되고 있는가?' 등 꼼꼼하게 따져 본 이후 구입하도록 한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하고 능력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많은 주부들이 사치를 위해 카드구매를 과다하게 하여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회사원들이 비싼 술을

마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물품이 맘에 들지 않아 안 사고 싶을 때를 대비하여 '반품과 환불이 가능한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후 사용한 후에도 서비스가 무상으로 실시되는가?'를 확인하고 따져보고 모르는 것은 묻고, 법령(소비자관련법 65가지 있음)을 활용하여 권리를 누릴 줄 아는 소비자로서 구매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3) 소비

구입한 물품의 소비는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의 미덕을 지닐 수 있다. 변기물통에 물을 넣은 페트병 또는 벽돌을 한 장 넣는다든지, 세수비누곽 밑에 수세미를 놓아 비눗물을 활용하여 세면기 등을 닦는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절약과 검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러한 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KBS창사 27주년 기념활동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대전의 'Help me 아줌마' 가 소개되었다. 이 아줌마는 관공서를 다니며 양말을 팔고 있었다. 월 1만원으로 생활하고 20년 동안 방에 불을 안 때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안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한다. 양말을 팔아서 번 돈으로 부모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대주었는데 그 아동들의 수만 해도 500명이 넘었다고 한다. 현재 미혼모가 버린 아이의 양육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늙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다. 양말도 예전같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걱정이셨다. 지금 남은 희망이라면 현재 돌보고 있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만이라도 살아서 계속 학비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의 근검 절약하는 생활은 물론 어려운 아동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큰 삶을 사시는 분이다.

4) 소비 이후의 책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용한 이후의 쓰레기 문제까지 생각하여 구입

하고 소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한 물품에 대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불필요하거나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하지 않거나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장용기들은 반드시 사용 후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량음료 등이 담긴 깡통은 그 깡통 자체가 큰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재생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진다.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구입하는 습관으로 소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일회용품은 안 사고 안 쓰기를 노력해야 한다. 1회용품의 1일 쓰레기가 1,035톤이며 1년 쓰레기는 380,000톤이라고 한다. 이때 쓰레기 처리비용만도 연간 1,000억원이며 1회용품을 만들기 위해 연간 4,000억원이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간 5,000억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경제의 손실도 줄이면서 환경까지 보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합성세제를 사용한 결과를 예를 들어보자. 합성세제를 사용하면 주부들에게 '주부습진'이라는 피부병을 일으키게 된다. 즉 소비자는 합성세제의 피해자가 되며 합성세제가 섞인 물이 흘러가 강물을 더럽히게 되면 그 소비자는 강물을 더럽힌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농약의 경우도 좋은 본보기이다. 농약을 사용한 농부가 농약의 독성이 그에게 옮겨갔으면 그 농부는 농약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환경을 더럽힌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그 농약의 잔유량이 농산물에 남아서 소비자들에게 옮겨가 소비자의 인체에 축적되게 되었다면 농부는 그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이중의 가해자가 된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우리 생활의 터전을 지키는 소비자의 행동인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4. 소비생활계획

합리적인 소비생활계획은 최소의 경제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정착지원금은 일생 동안의 삶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일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알차게 소비계획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남한사회는 IMF체제 아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매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착지원금에만 의지하는 것은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경제사정과 낯선 남한사회 소비에 정착해야 하는 어려움은 많이 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보고, 느끼면서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수입과 지출의 균형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계획은 전 생애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소비와 저축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이 많아지는 연령은 대개 20대 후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40-50세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지출은 1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50대 이후 점차 증가하여 노령인구에 속하는 65세 이상 되면서 퇴직 등으로 수입이 단절되기 시작하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자녀결혼, 기타 일상생활 사건 등에서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20대 후반부터 60세에 이르는 사이에 저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이후 노인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월, 매년 단기계획도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2) 절약과 검소

소비계획은 절약과 검소한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량의 세탁물을 모았다가 세탁기를 작동하는 것, 전기료와 물 절약을 위한 손빨래를 하면 의복의 보존이 잘 되는 것은 물론 세탁하는 사람의 운동까지 부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밥과 반찬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시장 갈 때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가서 충동구매를 줄이는 것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실천하는 생활의 계획이 필요하다.

3) 충동구매

남한사람들의 소비성향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충동구매를 많이 한다고 한다. 남이 사니까 나도 산다(band wagon 효과)는 식의 사고는 백해무익하다. 충동구매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수첩에 적고 그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뒤 가장 저렴한 가격과 아프터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가계부

바쁜 일상생활에서 가계부를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매월 수입과 지출을 적으면서 과소비와 지출항목의 적절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다음달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록의 형식은 간단히 수입란과 지출란 합계, 잔액, 정도를 기록하고 카드값 사용 또는 가재도구 등 특별히 많은 지출을 하였을 때는 따로 기록해 둔다.

5) 가정경제관리

가정의 경제관리는 부부가 공동으로 한다. 돈을 버는 사람은 근로의 보람을 느껴야 하며 함께 사는 가족은 절약하여 살림을 살아가는 태도로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소비 지출계획을 함께하여 가족구성원이 가정의 경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뜻밖의 지출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를 관리한다면 주식에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카드

과소비 등을 사전에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비자 운동(Consumer Movement)

1) 소비자운동의 이해

소비자운동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대량생산 경제체제하에서의 소비자의 불리한 위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의 시장경제 이론은 시장구조 안에서 소비자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가장 질이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대의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드물게 일어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의 시장은 기업의 카르텔 형성, 독점형성 등으로 소비자의 요구나 수요보다도 기업의 이윤확대를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재화의 종류, 품질, 가격도 기업 측에서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었다. 즉 개인이 시장을 조절하기보다는 시장이 개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소비자운동은 소비자의 권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을 꾀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운동이란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운동이란 소비자의 불만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아닌 제 3자 즉 정부가 활동하는 것이다.

2) 소비자운동의 접근방법

소비자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상황정의와 소비자운동의 목적과 수단이 달라지므로 소비자운동의 방향도 달라진다. 소비자 문제를 보는 시각으로 〈표 1〉에서 보듯이 합의와 갈등이 각각 상반되는 관점을 들 수 있다. 이 두 접근방법은 문제의식부터 문제의 해결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

고 있다. 먼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협력적 모델은 소비자 개인의 정보지식 부족으로 인한 합리적인 상품선택 능력의 부족을 든다. 반면 저항모델에서는 소비자문제란 불균형을 이룬 경제, 사회적 구조로 말미암아 소비자라는 집단 전체가 사회구조 안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협력모델은 소비자가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해야 함을 주장하는 반면 저항모델에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구조(법률, 단체, 일부지배층, 때에 따라서는 자국 밖의 다른 나라 등)를 바꾸어 그 사회구조를 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에서도 협력모델은 소비자들이 당면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사 또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이때 지도자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된다. 저항모델에서의 지도자 역할은 행동가로서 그 집단을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아 그 문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노력

〈표 1〉 소비자문제를 보는 두 시각

	협 력 모 델	저 항 모 델
목 적	• 개인소비자의 이익증대	•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문제의 원인	• 정보의 부족 • 기술의 부족	• 불균형한 경제 · 사회 구조
방 법	• 소비자의 문제해결능력 습득	• 소비자 이슈를 구체화 • 가해자에 대한 조직화
기교와 기술	• 합의 • 대화	• 갈등 • 협상
지도자의 역할	• 문제해결을 가르침 • 교사, 안내자, 조정자	• 문제의 원인을 설명함 • 선동가, 설교자, 협상가
교육의 내용	• 소비자 정보제공 • 현명한 소비자 양성	• 신념

해야 하는데 이때 성공여부는 다른 단체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의 내용에서 협력적 모델은 사회적 적응을 강조하는 편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구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불만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항모델에서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 구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집단행동에 필요한 기술·신념을 알려주는 것이 주된 교육내용이다.

3) 소비자 운동의 쟁점

소비자운동의 쟁점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사회가 처한 환경 즉 경제·사회구조에 따라서 또한 소비자문제를 감지하는 지도자들의 관점과 능력에 따라서 또한 소비자 단체의 재원에 따라서 그의 선택은 달라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1) 상품의 질

불량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소비자가 기대하는 상품의 질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기대하는 상품의 질이 아닌 경우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기대하는 상품의 질이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세탁소에 맡긴 옷이 옷의 색깔이 바랜 경우나 식품의 포장이 찢어진 경우, 봉인이 되어 있어야 할 뚜껑이 열려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2) 가격

비싼 가격, 바가지 요금, 잘못 책정된 공공요금, 바겐세일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 바가지요금은 쉽게 속은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비싼 가격이나 잘못 책정된 공공요금 등은 소비자로서 발견하기 어렵다. 유통구조의 복잡성, 다단계 유통, 독과점시장 등으로 발생하는 비싼 가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 공정한 거래

약관, 실량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모든 약관이 기업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와 같은 예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미국의 맥도널드 햄버거의 경우 총판매액의 11.5%를 미국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든지 또한 많은 약품의 경우 그들의 상품을 광고하는데 약값의 약 20%가량 지불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4) 상품의 안전성

상품의 안정성의 내용은 위해성 여부와 기준량 그리고 규격 등을 통해서 따질 수 있다. 즉 화학조미료, 아스피린, 아스파르탐, 항생제, 농약 등의 상품이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안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생활 속에 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사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가 부엌에서 장난을 하다가 벌안간 마당으로 소리치며 뛰어나갔다. 아이와 함께 부엌에 있다가 잠시 밖에서 일을 하던 엄마가 아기를 보니 그의 몸이 새까맣게 되어 까만 물감을 가지고 놀았나 생각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기가 입고 있던 옷이 몽땅 타고 아기는 물론 깊은 화상을 입었다. 어린이는 화학섬유로 된 옷을 입고 난로 가까이 있다가 옷에 불이 붙었던 것이다. 1970년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고이다. 인화성 섬유로 인한 사고로 미국에서는 매해 똑같은 사고로 3천명의 아이가 죽고 15만명의 어린이와 노인이 같은 이유로 부상을 당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인화성 섬유로 장식된 옷을 사지 말도록 어머니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정성에 관한 논의 중 최근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정책결정자와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높여준 것은 인도에서 일어난 보팔(Bhopal)사건과 소련에서 있었던 원자력 핵발전소 사고인 체르노빌 사건을 들 수 있다. 보팔사건은 1984년 12월 3일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 농약제조회사에서 새어 나온 독가스로 인해서 인도 보팔시에 있는 식민 2천5백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로 제조회사의 사고 중 역사상 가장 큰 참사였으며 안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표 2〉 소비자운동의 쟁점·분야와 내용

	상품의 질	적절한 가격	공정한 거래	안정성
상품과 용역	① 불량식품 결함 의료서비스	② 표시가격 바겐세일 바가지요금	③ 실 량 약 관 포장표시	④ 위해성 기준량 규격
법률과 정책	피해보상기준 식품위생법	재판매 가격 규제 소비자 가격 표시제도	약관 규제법 공정거래법 주택임대차법 WTO의 영유아 식품판매규제제약 UN다국적기업 규제규약	공해산업 UN통합자료 UN농약판매 및 사용 규제규약
환 경	쓰레기(포장)	사회적 비용의 증가	공해기업의 이동	환경오염

4) 소비자운동의 분야

(1) 환경

환경은 소비자운동의 중요한 분야중 하나가 되었다. 인구의 증가, 기술의 발달, 자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 중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대기업의 비윤리성, 정부의 무계획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환경을 파괴하는 속도는 발전을 급히 서두르는 나라일수록 빠르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다. 일본은 한때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공업화만을 서둘렀다. 바로 이것이 땅과 물을 독성화시켰다. 땅과 물속에 수은, 카디뮴 등이 스며들었고 이곳에서

자란 동식물들을 통해 그대로 인체에 옮겨지게 되었다. 수은이 든 생선을 먹고 미나마타병(minamata)이 생겼고 쌀 속에 들어 있는 카디뮴을 먹고 이따이따이(itaita)병이 발생하여 수백명이 죽고 병들었다. 또한 합성세제로 인해 호수의 물이 오염되고 기형물고기가 생겨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환경문제는 전 세계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2) 법률과 정책

상품과 용역의 질, 적절한 가격, 공정한 거래 그리고 안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의 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법률과 정책이다. 이 법률과 정책에 관한 것은 흔히 눈에 뜨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운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국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소비자의 개인생활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공업화, 수출위주의 정책은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수출비용까지 부담하게 한다든지 소비자는 외면하고 일방적인 기업보호로 인한 기업인의 안일한 자세 등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건전한 소비생활은 이렇게 하세요 ◀◀

① 생활비의 10% 우선 저축

②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사재기 안 하기

③ 연, 월 단위 소비계획 세우기

④ 가계부 쓰기 생활화

⑤ 쇼핑 전 품목 메모로 충동소비 예방

⑥ 영수증은 꼭 챙겨 세금 부담 줄이기

⑦ 축하 인사는 난, 화환 대신 전화로

⑧ 값비싼 사치품 사지 않기

⑨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

⑩ 신용카드는 1개만 사용

⑪ 신용카드로 충동구매하지 않기

⑫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록

⑬ 청소년의 모방, 충동구매 자제

⑭ 청소년은 실용적인 제품 구입

⑮ 청소년은 인기 연예인 모방하지 않기

⑯ 청소년에게 신용카드, 휴대폰 주지 않기

⑰ 어린이에게 올바른 소비습관 심어주기

⑱ 어린이마다 예금통장 만들어주기

⑲ 어린이에게 물건 아껴 쓰는 습관 길러주기

⑳ 어린이에게 용돈 기입장 쓰게 하기

㉑ 생활비 중 옷값 줄이기

㉒ 유행보다는 개성을 살리는 옷 고르기

㉓ 유명 브랜드보다는 값싸고 질좋은 옷 선택

㉔ 같은 옷이라도 할인점에서, 할인기간에 구입

㉕ 세탁기 사용횟수 주 1회 줄이기

㉖ 다림질 일주일에 한 번 덜하기

㉗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㉘ 빵보다는 밥이 경제적

㉙ 음식은 조금 모자란 듯이 준비하여 남김없이 먹기

㉚ 온 가족이 함께 식사

㉛ 어린이 간식 집에서 만들어 주기

㉜ 냉장고 문 하루 한 번 덜 열기

㉝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알맞은 크기로 사용

㉞ 외식 횟수 줄이기

㉟ 충동적, 즉흥적인 외식 하지 않기

㊱ 고급, 호화 음식점 이용 자제

㊲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싸오기

㊳ 술자리 줄이기

㊴ 호화 술집 가지 않기

㊵ 회식은 1차에서 끝내기

㊶ 1인당 적정평수 6평, 무조건 큰 집 선호하지 않기

㊷ 아파트 내부 개조하지 않기

㊸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 1도 낮추기

㊹ 겨울철 실내에서 내복입고 생활하기

㊺ 보일러 청소는 1년에 한번 이상

㊻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 1도 높이기

㊼ 가전제품은 에너지 절전형 사용

㊽ 적정한 용량의 냉장고 사용

㊾ 냉장고, 세탁기, TV는 10년 이상 사용

㊿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빼놓기

(51) 한 가구 한 전등 끄기

㉜ 재래식 전구는 밝고 오래가는 절전형으로 교체

㉝ 변기 물통에 플라스틱 물병 넣어 두기

㉞ 양칫물은 컵에 받아서 사용

㉟ 목욕한 물은 청소, 빨래용으로 다시 쓰기

㊱ 두루마리 화장지 한 칸, 티슈 한 장 덜 쓰기

㊲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기

㊳ 장거리 여행은 대중교통 이용

㊴ 휴가는 연중 적정하게 나누어 사용

㊵ 새차 구입시 에너지 절약형 경승용차 선택

㊶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㊷ 자가용은 주중에 하루 세워두기

㊸ 승용차 오래타기(10년이상)

㊹ 자동차 운행장부(차계부) 적기

㊺ 자동차 출발 전에 미리 행로 파악

㊻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기

㊼ 급가속 자제하고 자동차 출발은 천천히

㊽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㊾ 자동차에 불필요한 짐 싣고 다니지 말기

㊿ 고액 개인과외 하지 않기

(71) 가정 학습 분위기 조성

(72) 인사치레용 선물하지 않기

(73) 자녀 사교육비 줄이기

(74) 휴대폰, 삐삐 사용 줄이기

(75) 전화통화는 3분 이내 사용

(76) TV는 늘 켜두지 말고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계획 시청

(77) 담배 흡연량, 술 음주량 10% 줄이기

제 3 장 생활예절

1. 예절이란 무엇인가?

1) 예절(禮節)의 의미와 기능

(1) 예절의 의미

- **예의범절**
- **에티켓(etiquette)**
- **매너(manner)**
  - 관습적으로 행해져 내려온 사회 계약적인 규범(김득중, 1998)
  - 포스트(Post, 1997)는 "배려와 친절에 바탕을 둔 행동의 규범"
  - 이정우 외(2001): 예절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자기 내면을 가다듬고 타인을 존경함은 물론, 마음으로부터 섬기며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성품과 교양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품위 있는 몸가짐, 바르고 고운 말씨, 세련된 행동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남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약속
  - 한국여성교양학회: 예절은 자신의 모든 면(思, 視, 聽, 言, 動)을 바르게 닦아, 타인을 공경하며, 그 사회와 문화에서 통용되는 법식과 도리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내 방식대로만이 아님. ㉠ 여우와 두루미)

▶ 동·서양 모두 예절의 본질은 원활한 공동 생활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며 그 바탕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재된 실제와 이를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격식의 조화라 할 수 있다.

2) 예절의 기능

(1) 자기관리

(2) 대인관계 원만

(3) 가족과 사회의 질서, 가족과 사회의 화합 등

2. 예절의 인륜성, 문화적 특수성, 실천적 당위성

ㅇ 예절의 인륜성 : (　　)

ㅇ 문화적 특수성 : (　　)

ㅇ 실천적 당위성 : (　　)

- 문명화된 행동양식으로 오늘날의 예는 법과의 상호조화도 필요

3. 예절의 정신(동양+서양)

1) 동양 - 유교에 바탕

• 정성, 공경, 사랑

• 五德(仁義禮智信), 五倫(君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中庸, 和 등

2) 서양 - 중세 기사도, 기독교에 바탕

• 서로 호감을 주고받도록 하라 - 표정, 말과 행동 등

• 남을 부끄러운 처지에 몰아넣지 않도록 하라

•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지켜라 - 교통기관, 파티, 강연, 음식점, 커피숍 등

• 노약자 보호,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

• 때, 장소, 상황에 맞는 예절을 실천하라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라 등

4. 생활속의 예의실천

1) 마음가짐과 몸가짐

(1) 마음가짐(九思)- 논어(論語)와 율곡 이이(栗谷 李珥) 선생의 격몽요결(擊夢要訣)

① 시사명(視思明) : 볼 때는 바르게 보아야겠다는 생각

② 청사총(聽思聰) : 들을 때는 바르게 들어야겠다는 생각

③ 색사온(色思溫) : 표정은 온화하게 지어야겠다는 생각

④ 모사공(貌思恭) : 모습은 공손하게 하겠다는 생각

⑤ 언사충(言思忠) : 말은 거짓됨이 없이 하겠다는 생각

⑥ 사사경(事思敬) : 모든 일에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생각

⑦ 의사문(疑思問) :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

⑧ 분사난(忿思難) : 화나는 일이 있으면 다음에 어려움에 이르지 않을지를 생각

⑨ 견득사의(見得思義): 이득이 생기면 올바르게 생긴 것인지를 생각

(2) 몸가짐(九容)- 소학과 격몽요결

① 족용중(足容重) : 발은 무겁게

② 수용공(手容恭) : 손은 공손하게

③ 목용단(目容端) : 눈은 단정하게

④ 구용지(口容止) : 입은 다물고

⑤ 성용정(盛容精) : 말소리는 조용히

⑥ 두용직(頭容直) : 머리는 반듯하게

⑦ 기용숙(氣容肅) : 호흡은 엄숙하게, 고르게

⑧ 색용장(色容莊) : 얼굴은 명랑하고 생기 있게

⑨ 입용덕(立容德) : 서있는 모습은 덕성스럽게

2) 인사예절-가정, 학교, 이웃, 직장에서 적절한 인사말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공수 : 공손하게 손을 맞잡는 것, 평상시: 남자-왼손, 여자-오른손이 위로 가게. 상가에서는 반대로

실습

1) 앉아서 하는 절-하는 때, 횟수, 절하고 받는 예절 등
   - 큰절 - 전통관례(성년례), 전통혼례, 폐백, 상가 조문시, 제례, 수연례 헌수 등
   - 평절 - 설날세배, 평소 어른께, 평교지간
   - 반절 -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시
2) 서서 하는 절- 경례, 악수, 포옹, 손에 하는 입맞춤, 합장 등
   - 경례 - 큰경례 : 45도, 평경례 : 30도, 반경례 : 15도
   - 악수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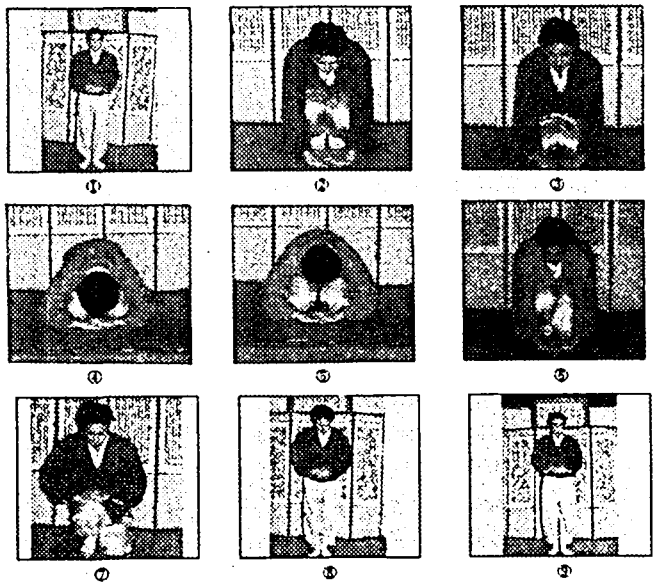
3) 몸차림-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1) 몸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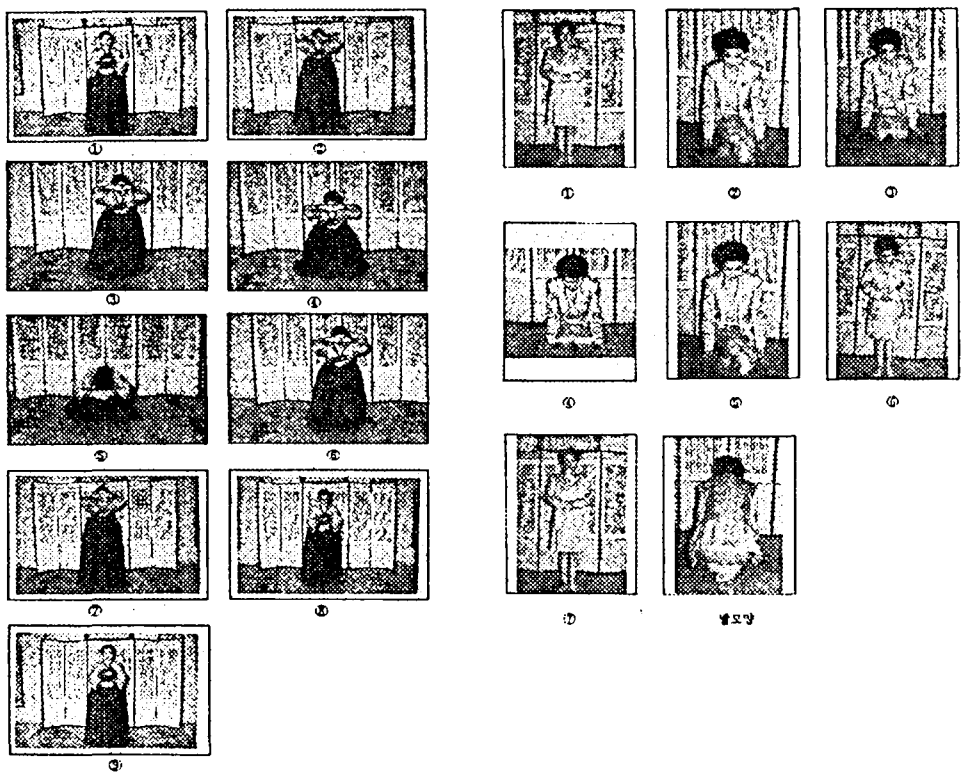
몸차림과 몸가짐은 기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람의 몸차림은 그 사람의 첫 인상을 좌우한다. 청결하고 신선한 느낌의 피부와 말끔한 머리 스타일, 깨끗한 치아, 손질이 잘 되어 있는 손이나 구두 등 단정한 차림은 매력적이고 멋이 있어 호감이 간다.

예로부터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상하지 않도록 가르쳐 왔는데 신체의 기능을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결히 하고, 적당한 운동과, 균형적인 식사를 하도록 한다. 아무리 예가 바르다 해도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표현하기도 어렵고 상대방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남자의 큰절과 평절 - 남자의 큰절과 평절은 머리 숙이고 머무는 시간만이 다르다.



■여자의 큰절과 평절



- 얼굴과 몸
- 치아, 코와 귀
- 수염
- 손과 발
- 머리

☞ 이런 모습 어때요? - T. P. O 에 따른 꼴불견

(2) 옷차림

대체로 사람의 첫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어떻게 갖추어 입었는지에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는가는 옷차림의 기본이다.

실제로 의복의 기능은 체온을 보전하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며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등이다.

때와 시간 상황에 맞게 의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으면 활동하기에 편리할 수도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또한 옷에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이 다르게 행해지기도 한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 연령·성별·계절에 맞게, 지위나 직업에 맞도록 늘 청결 단정하게, 여름옷은 노출이 심하지 않게, 속옷류의 일습을 갖춰, 때와 장소에 따라, 단체내의 의복 규정은 지키며, 의복은 개성에 맞게 입으면서 남과 어울리도록,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친밀감 있는 색깔이나 디자인의 옷을 입어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거추장스런 의복은 피한다. 또한 쇼핑을 하는 경우에도 간편한 복장이 좋다.

실습

☞ 남성, 여성의 경우

- 양장과 양복 고르는 법과 입는 법
- 한복 고르는 법과 입는 법

(3) 장신구

과거 관료계급에서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일반사회에서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현대에는 어느 누구나 많이 패용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같은 옷도 장신구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맛과 멋을 낼 수가 있다.

① 피부의 색깔 및 체구의 크기 등과 균형, 입는 의복에 따라 어울리는 장신구 ② 나이, 신분, 직업 등과 조화 ③ 계절과 시간, 주위환경, 상황에 맞도록 ④ 자신의 경제사정에 알맞게 ⑤ 장식 포인트를 생각하여 선택

(4) 화 장

화장은 건전한 자기 표현의 기법으로 깨끗한 피부손질과 개성을 살려 자기 자신의 살결이나 얼굴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에도 화장의 목적이 있다.

① 대인관계에서 남과 조화되도록 자연스럽게 자신의 얼굴에 잘 어울리게 ② 화장은 자신의 주체성·자존감을 가지고 ③ 냄새에 유의 ④ 외출시, 화장 수정시 유의 -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삼가

☞ 화장 이것만은!

4) 몸놀림

몸놀림은 단정한 몸가짐의 기초가 되며 모든 예의의 첫인상이 된다. 또 바르지 못한 몸놀림은 그 사람의 기품에도 영향을 주지만,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항상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가지도록 주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생활 자세는 모두 상대를 인식하며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1) 서 있을 때
   (1) 바로 서는 자세 (2) 편하게 설 때
2) 앉은 자세
   (1) 바닥에 앉을 때 (2) 의자에 앉을 때
3) 걷는 자세
   ※ 안내할 때: 1인이 안내시- 2인이 안내시
4) 계단을 오르내릴 때 - 여성과 동행시 남성이 먼저 오른다
5) 남의 앞을 지날 때
6) 출입예절
7) 기거동작

---

5) 물건 다루기 - OHP참고, 실습
   (1) 물건을 다룰 때에는

   (2) 다른 사람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6) 말하는 예절과 듣는 예절 - OHP참고
   (1) 말하는 예절

   (2) 듣는 예절

7) 전화예절 - OHP참고, 실습
   (1) 전화를 걸 때

   (2) 전화를 받을 때

(3) 전화를 끊을 때

(4) 남의 전화를 빌려 쓸 때

(5) 전화가 잘 못 걸렸을 때

(6) 전화를 바꾸어 줄 때

☞ 사례 - 공공 장소에서의 전화(강의실, 전철, 버스, 식당, 영화관, 공연장 등) 골불견

8) 가족간의 예절/ 친척/이웃간의 예절/ 직장에서의 예절 - OHP참고

(1) 부부간의 예절

(2) 부모자녀간의 예절

(3) 형제자매간의 예절

(4) 친척간의 예절

(5) 이웃사이의 예절

(6) 직장예절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예절, 직장근무예절, 직장상사, 동료, 후배와의 관계에서의 예절, 호칭 등

9) 사교예절 - OHP참고, 실습

(1) 소개와 인사 - 소개할 때와 받을 때의 예절

(2) 명함 주고받는 법

(3) 호칭- 가정에서, 직장에서

(4) 적절한 경조 문구

10) 초대와 방문

(1) 초대시 예절

(2) 방문시 예절

(3) 접대시 예절

(4) 선물예절

11) 식사예절

식사예절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들이 서로 요리를 맛있고 즐겁게 먹기 위하여 필요하다.

(1) 음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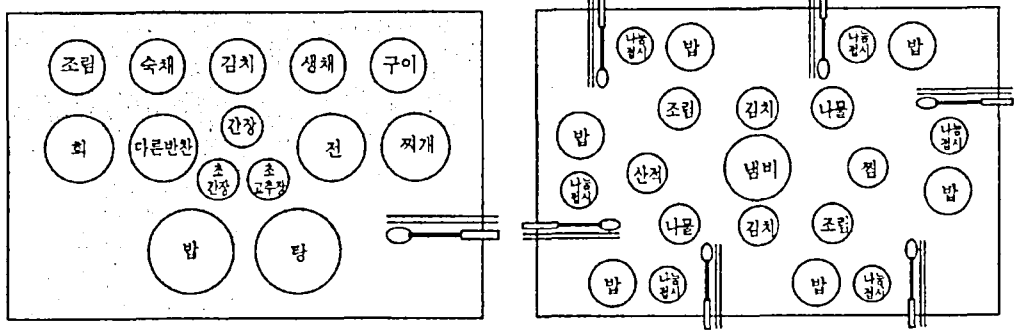
- 한국음식
- 서양음식

(2) 상차림 및 테이블 매너- OHP

① 한국음식 상차림과 식사예절

■ **상차림**

상차림에는 주식에 따른 반상, 면상, 주안상, 다과상 등의 일상식과 상차림의 목적에 따른 교자상, 돌상, 초례상, 큰상, 입매상, 제상, 차례상 등의 의례식 상차림이 있다.



〈외상의 경우〉 〈교자상의 경우〉

- 반상

밥을 주식으로, 반찬을 부식으로 하여 차리는 상차림을 말한다. 상을 받는 사람에 따라 외상, 겸상, 셋 겸상, 넷 겸상,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는 두레반상을 차린다.

상차림은 국·찌개·김치·간장·초간장을 제외한 반찬의 수에 따라 3첩·5첩·7첩·9첩·12첩으로 구분된다. 과거 사대부가와 궁중에서는 9첩·12첩을 사용하였으며, 7첩 이상의 반상은 주로 특별한 날에 차리고 찜과 반주, 과일 등을 곁들이는 곁상이 있다.

반상차림과 손님 접대를 위한 교자상 차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저는 먹는 사람의 오른쪽에 가지런하게 하여 상 끝에서 3㎝ 정도 나오게 놓는다.

나. 간장, 초장 등의 종지류를 상의 중심에 놓는다.

다. 김치류는 상 맨 뒷줄에 놓으며, 국물 있는 조치나 따뜻한 조림, 찜, 맛있는 음식 등은 오른쪽에, 나물이나, 마른 찬, 찬 음식은 왼쪽에 놓

는다. 맨 앞 중앙의 왼쪽에 밥, 오른 쪽에 국을 놓는다.

라. 수저는 휘건(냅킨)위에 놓고,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토구나 각 접시를 준비하여 생선가시나 껍질을 버리도록 하며 요즘에는 작은 개인 접시를 놓기도 한다.

■ 교자상

명절이나 가정의 큰 행사, 회식 등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 차리는 상이다. 이때 음식을 차려내는 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즉 공간전개형과 시간전개형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간전개형이었으나 점차 중국이나 서양요리 제공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아 시간전개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특히 고급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시간전개형으로 음식이 제공된다.

■ 식사예절

가. 상이나 식탁에는 어른이나 주빈이 상석에 먼저 앉으신 후 나중에 바른 자세로 앉는다. 이때 밥상 모서리에 앉지 않도록 한다.

나. 주빈이나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수저를 들어서는 안되며, 가볍게 답례를 한 후 식사를 한다. 식사 중 수저는 함께 쥐지 않는다. 식사 속도는 10명 정도 이내일 때에는 자기의 양옆 및 앞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조절한다. 식사가 먼저 끝난 경우 수저를 국 대접에 걸쳐놓았다가 모두 들고 난 후에는 상에 내려놓는다.

다. 밥을 먹을 때에는 밥그릇을 들거나 밥그릇 긁는 소리를 내지 말며 김치 국물, 국 등을 먹을 때에도 그릇째 들어 마시지 않는다.

라. 반찬을 집었다 놓았다 하거나 이것저것 뒤적이거나 흘리면서 먹지 말며 한입에 먹을 만큼만 집어서 입을 다물고 먹는다.

마. 식사 중에는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은 좋으나 가능하면 입안에 음식물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식사 중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 손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다.

사. 술은 먼저 어른에게 두 손으로 따라 올리고 어른이 술잔을 주시면 두 손으로 받는다. 이때 어른이 먼저 술잔을 비우신 뒤에 몸을 옆으로 돌려 마신다. 상대방이 준 술은 가급적 마시는 것이 예의이므로 받아서 조금만 마시고 다음부터는 거절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아. 식사 도중에는 가능하면 자리를 뜨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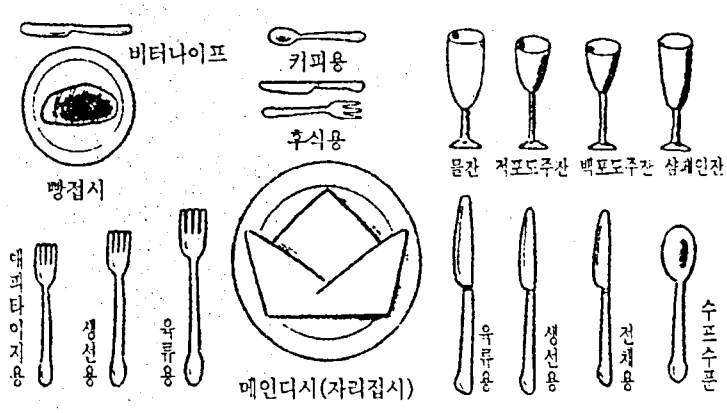
자. 음식을 먹는 도중에 뼈나, 생선 가시, 이물질 등은 옆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종이냅킨에 싸서 버린다.

차. 반상기의 뚜껑은 빈 그릇의 경우 뒤집어 덮으며 남은 음식이 있는 그릇은 본래대로 덮어놓는다.

카. 모두 식사가 끝난 뒤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② 서양음식 상차림과 식사예절

■ 상차림



(그림 3) 서양음식의 상차림

■ 일반적인 매너

예약, 복장, 좌석, 식탁에서, 식사시, 나이프와 포크사용, 식사시 대화

- 식탁에서 삼가할 일

•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면서 왼손으로 접시를 잡는 것
• 식사 후 그릇을 웨이터나 대접하는 사람이 치우기 전에 치우는 것
• 식사 후 몸을 뒤로 젖히며 "다 먹었어요", 또는 "배가 불러요"라는 말 하는 것
•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을 때에 음료를 마시는 것.
• 더러운 식기가 눈에 띄면 식기를 닦는 것
•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식탁에 앉는 것
• 술잔이나 물잔 따위를 집어 들 때에 입 닿는 부분을 거머쥐는 것.
• 잔에다 스푼을 꽂아 두는 것.
• 음식이 반쯤 남아 있는 스푼이나 포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
•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릇에 담긴 음식을 모두 잘게 썰어 놓는 것.
• 식사중 머리를 긁는 것, 턱을 고인다던가 다리를 꼬는 것.
• 포크나 나이프를 휘저으며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나이프를 입에 대는 것
• 음식을 먹을 때 소리내는 것
• 식탁 앞에서 이쑤시개를 쓰는 것, 물로 입을 헹궈내는 것, 화장을 고치는 것

이 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 몸을 굽혀 음식으로 입을 가져가는 행위, 식사도중 이 테이블 저 테이블로 옮겨가며 이야기하는 것 등은 삼간다.

■ 코스에 따른 매너

- 정찬 순서

• 애피타이저(appetizer, hors-d'oeuvre) - 식욕을 돋구는 간단한 요리
• 수프(soup) -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기분으로, 오른손으로 스푼 쥐고 왼손으로 접시 앞부분을 든 채로 스푼을 앞쪽에서 뒤로 밀면서 떠먹

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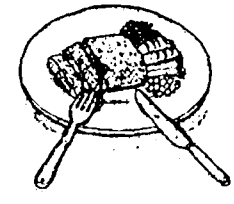
- 생선요리(fish)- 뼈가 없는 생선요리일 경우에는 그대로 생선의 왼편에서 먹으면 된다. 생선요리에는 머리와 꼬리가 달린 경우와 떼어버린 경우가 있다. 생선 윗부분 살을 먹고 나서 나이프, 포크로 뼈를 추려 접시 위쪽에 놓은 후 왼쪽에서부터 한입 크기씩 잘라먹는다.
- 앙트레(entrée)와 로스트(roast 육류요리)- 스테이크가 큰 것이면 일단 반쪽으로 자른 후에 왼쪽편의 고기부터 한입에 먹을 만큼씩 잘라먹거나 몇 번 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은 다음 먹는다. 왼손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왼쪽의 포크를 오른손으로 옮겨 오른손으로 먹어도 된다. 고기의 구운 상태(반쯤 덜 익힌 것- 미디엄 레어, 중간쯤 구운 것- 미디엄, 잘 익힌 것-웰던이라 한다)
- 샐러드(salad) 치즈(cheese) - 샐러드는 보통 소스를 쳐서 포크만으로 먹는다.
- 후식(dessert) → 음료(beverage) - 과일, 아이스크림, 케익과 함께 차(홍차, 커피, 등)가 나온다. 소리내지 않고 마신다.

■ 나이프와 포크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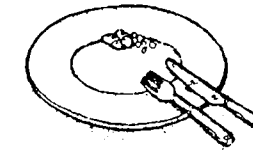
▲ 나이프 잡는 법

▲ 스푼 잡는 법

(그림 4) 식사 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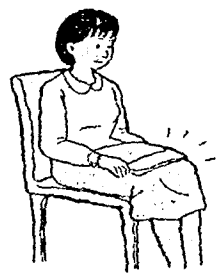
▲ 식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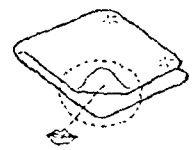
▲ 식사 후

(그림 5) 식사 종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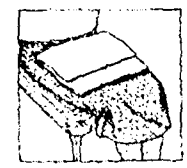
■ 냅킨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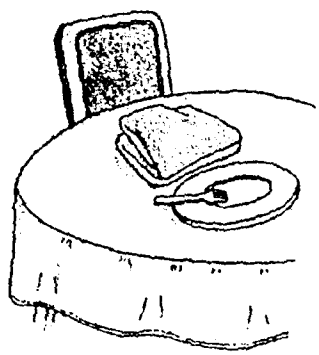


▲ 접은 부분을 안쪽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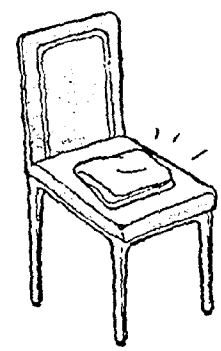


▲ 냅킨 안쪽 사용





(그림 6) 식사 종료 후



(그림 7) 식사 중 잠시 자리를 뜰 때

■ 식사 할 때의 대화

■ 음주예절

- 술과 안주
- 요리에 따른 술 선택 법
- 술 따르는 법

12) 가정의례 - OHP참고, 실습

(1) 관례(성년례)

① 관례의 의미- 부모나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어른이 됨을 축하해 주고 책임과 의무를 깨우쳐 주는 의식이다.

② 관례의 준비

③ 관례의 절차

④ 관례(성년례)를 치르면서 달라지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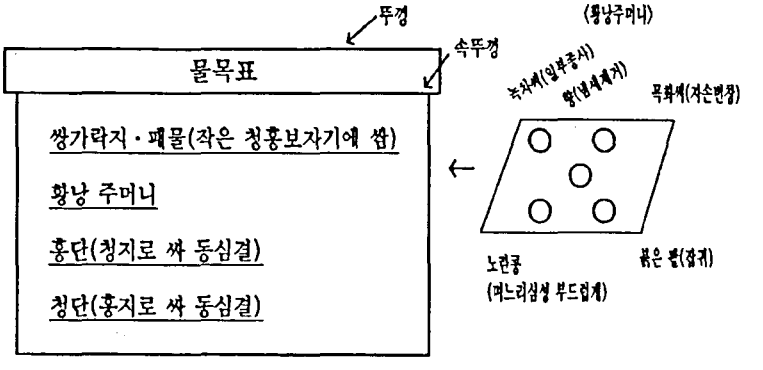
- 성년의 책임과 권리
- 성년자에게 대하는 예절

(2) 혼례

① 혼례의 의미

② 혼례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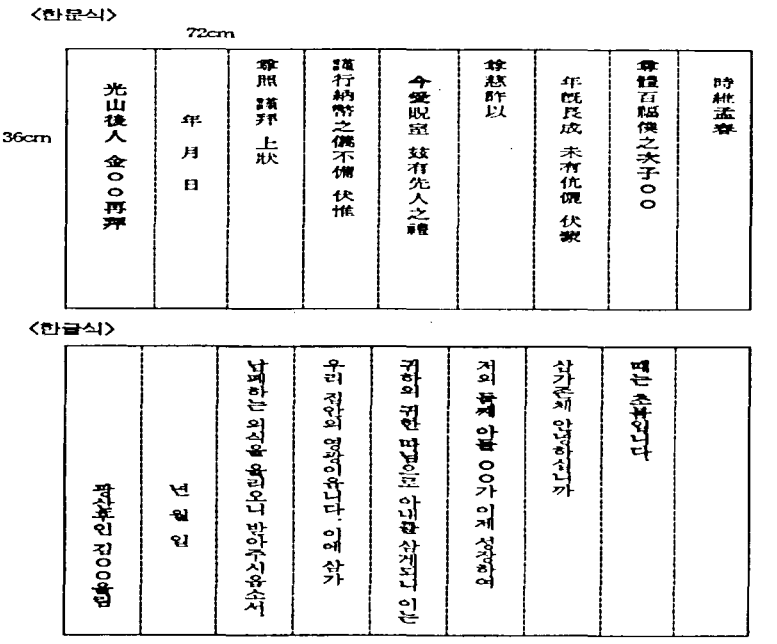
■ 함의 예 - 지방이나 가문에 따라 함속에 넣는 물건의 종류와 개수가 다름



③ 기타

- 교제시의 예절
- 여자집에서의 예절, 남자집에서의 예절,
- 함, 폐백에 대한 예절
- 복장, 혼례식장에서의 예절

④ 바람직한 혼례의 방향



(3) 상례

① 상례의 의미

② 상례의 절차

③ 조문예절

④ 봉투 쓰는 법- 실습

⑤ 바람직한 혼례의 방향

(4) 제례

① 제례의 의미

② 제수준비와 진설

③ 제례의 절차

④ 축문, 지방 쓰는 법

⑤ 바람직한 제례의 방향

(5) 수연례

13) 공중생활예절 - 비디오

(1) 박물관, 미술관,

(2) 영화관

(3) 강연장

(4) 병원, 은행

(5) 전철, 버스

(6) 공중화장실

(7) 수영장, 목욕탕, 해수욕장

(8) 등산

예에서 벗어난 일이나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에 대해서는 법(法)을 어기는 것보다 그렇게 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의 없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존경이나 신뢰를 잃어 평이 나빠져서 교제나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절은 자기관리와 함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는 상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멋진 시민, 품위 있는 한국인, 국제화 시대에 주역이 될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생활문화인 예절과 타문화의 예절도 배우고 익혀 순조로운 생활적응과 함께 교양 있는 사람이 됩시다.

〈부 록〉

예절생활

1. 전화 예절

전화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변 필수품이 되었으며,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시간의 절약과 편리함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화통화시에는 나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이 좋다. 급한 용무일수록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처리하면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1-2회 정도 상대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결코 같이 흥분해서는 안되며,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전화응대 하나로 회사의 신용을 얻거나 또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인격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 전화로 응대할 때는 서로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이 중심이 되고, 또 말로만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쉽다. 따라서 전화통화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2. 대화 예절

하루의 일과는 말로 시작되어 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에 말을 듣는 것이 45%, 말하는 일이 30%, 기타 읽는 일과 쓰는 일이 25%라는 통계도 있다. 말씨는 사람의 인격과 교양의 표현이므로, 항상 기품있고 점

잖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말씨와 말투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평소 대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직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친밀감이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억양을 약간씩 높여서 지루함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대화라도 남에게 관대할 수 있는 친밀감이 있어야 하며, 그 태도와 표정에도 여유가 있어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된다.

대화중에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정리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이 이야기할 때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부당한 말을 했을 때는 그저 웃어넘기기보다는 정색의 표정을 지어,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차근차근 조리 있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다.

말은 표준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너무 심한 사투리를 쓰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항상 상대방을 보고 웃으면서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말도 서로 즐겁고 친근감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럿이 말을 할 때는 외톨이이거나 무료한 사람이 없도록 공통적인 화제를 찾아서 모두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혼자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되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험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화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정치나 종교문제 등은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소

지가 많으므로 유의하여 말을 해야 한다.

또 즐거운 시간에 침울한 화제를 꺼내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화제를 잘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불결한 이야기를 삼가고, 음식에 대한 불평도 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의 일에 대해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자기 가족이나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는 일은 실례가 된다. 저속한 말이나 유행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절친한 사이가 아닐 때는 지나친 익살이나 코미디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명함 교환 요령

명함을 주고 받을 때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명함은 후에 상대방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교환도 신경을 써야 한다.

명함을 주고 받는 적절한 요령을 몇 가지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명함은 원칙적으로 아랫사람이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윗사람의 명함을 받는 것이 순서이다.
- 구겨지거나 때가 묻은 명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명함을 줄 때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이 보기 쉽도록 내민다.
- 명함을 주고 받을 때는 공손하게 두 손을 사용하는데,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들고 오른손으로 주고 받는 것이 공손한 명함 주고받기이다.
- 명함을 받고 상대방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외우는 것이 좋다. 명함을 받고 상대방 이름의 글자가 어려울 때는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명함을 교환한 후, 상담 중에 되도록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친근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 명함은 항상 10-20매쯤 새 것으로 갖고 다녀야 한다. 받은 명함을 그날

중으로 언제, 무엇을, 어디서 등의 정보를 명함 여백에 쓰고 명함 보관함에 정리해 두면 다음에 참고가 된다.

- 명함을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바로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상대방이 명함을 내밀 때 딴전을 피워 얼른 받지 않는 것은 금물이다.
- 계단을 오르내리며, 식사중의 식탁에 다가가서, 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명함을 내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상대방 명함을 손에 쥔 채로 만지작거리거나, 접거나, 탁자를 툭툭 치는 일은 상대방에게 큰 결례가 된다.
- 상대방은 명함을 내미는데 "명함이 없어서…"라고 미리를 긁적이는 경우와 같은 실례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4. 사람 소개 요령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특기·특징을 담아 소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소개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상을 좋게 하는 경우라도 지나치게 과장된 소개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쾌감을 주므로 실례가 될 수 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한 쪽만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쪽의 체면을 깎는 듯한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개순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먼저 소개한다. 지위나 연령이 같을 경우에는 자신과 친한 사람을 먼저 상대방에게 소개하도록 하며,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 다음에 여성을 남성에게 소개한다. 새로 그룹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신참자를 우선 전원에게 소개한 후 모인 사람을 한 사람씩 소개한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소개하고 이어서 좌우 어느 쪽부터 소개해도 된다.

소개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친해지고 서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는 것이므로, 소개자는 공통의 화제를 찾아 얘기의 실마리를 엮어

나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술자리의 바른 처신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송년회, 신년 축하회, 간담회, 야유회, 동호회 활동, 체육대회 등이나 퇴근 후 가벼운 한잔에 이르기까지 술과 접할 기회가 아주 많이 있다. 술과 함께 인생 및 회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만이 표출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포부가 전개되는 등 일상업무에서 볼 수 없는 직장인의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술자리를 통해서는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도 있지만, 도리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동료나 선배가 술자리를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적당히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의 교제도 대인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볼 때, 적어도 세 번에 한 번쯤은 '감사합니다'하고 응낙하는 것이 좋다.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즐거워하는 것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

술자리에서의 올바른 예의를 살펴보면, 술을 따를 때는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윗사람 순으로 한다.

친구나 동료 또는 아랫사람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게 두 손으로 따르는 것이 좋다. 양복을 입고 두 손으로 따를 때는 왼손으로 술병을 받쳐 드는 것이 좋다. 한복을 입고 두 손으로 따를 때는 왼손으로 소매 끝을 올리듯이 하는 것이 좋다. 친구나 허물없는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한 손으로 따르되 반드시 오른손으로 따라야 한다.

술을 권할 때는 무리하게 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라고 가볍게 물어보고 권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술을 계속 받아드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 적절히 사양을 해도 괜찮다.

상사나 선배 등 연장자와의 합석일 경우, 윗사람에게 먼저 술잔을 돌리기보다는 윗사람에게서 먼저 술잔을 받은 후에 정중히 답잔을 올리는 것이 더 좋겠다.

간혹 약속이나 집안사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동료와의 술자리인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기 쉽지만 선배나 상사 등 윗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일 경우에는 처신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중히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먼저 일어나겠다."라고 예의를 갖춘 후 조용히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미리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애당초 적당한 사유를 들어 술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좋겠으며, 꼭 참석해야 할 술자리일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일어나는 사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양해를 미리 구하는 것이 좋겠다.

술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인물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회사나 상사에 대한 험담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상시 얌전하던 사람이 술자리에서 의외로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취중에는 될 수 있는 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술자리를 자기의 선전이나 평상시 언동의 변명자리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기만 아는 것처럼 지식을 너무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좋다. 술이란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 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독약이 된다. 술은 항상 기분좋게 마시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술자리에서 예의나 법도가 허물어져 불상사가 생기는 예는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주법이나 주도를 잘 지켜서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6. 흡연 예절

담배를 피울 때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흡연할 수 있는 장소인가 하는 것

이다. 복잡한 곳에서의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인화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화재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흡연을 피하도록 하며, 다음 상황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담배는 사양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외부사람이나 윗사람으로부터 담배를 권고 받았을 경우에,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담배라든가 피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정중히 사양해도 상관 없다.

간혹 접대용 담배상자 안의 담배를 권고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권고에 따라 피우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권하지 않은 경우에 담배를 피울 때는 "한 대 더 피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윗사람이나 외부손님이 담배를 꺼내 물었을 때 반드시 담뱃불을 붙여줘야 하는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업무상 중요한 손님이 찾아와서 응접실로 안내했을 때 꺼내 문다면 불을 붙여주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도 거듭되면 담뱃불을 붙여받는 쪽에서 오히려 거북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중에는 상대가 이리저리 성냥을 찾는 경우 이외에는 담뱃불을 굳이 붙여줄 필요는 없다.

만나자마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쪽에서 방문한 경우는 물론 방문객이 찾아온 경우에도 의자에 앉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줄 수 있다.

또 손윗사람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한 후 흡연하도록 해야 한다.

역이나 구내식당 등 혼잡한 곳, 상대방이 식사를 끝내지 않았을 때, 재떨이가 없는 응접실, 걷고 있을 때, 상사가 꾸지람을 할 때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담배를 피울 때는 남의 얼굴에 연기를 가게 하거나 콧구멍으로 연기를 내뿜는 것은 좋지 않다.

담배 등을 권할 때는 입에 무는 쪽은 손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냥불은 유황냄새가 사라진 후 붙여주되 코 앞에 너무 바짝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명절시 세배 요령

명절때가 되면 친척 및 친지들을 찾아 세배를 하는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세배이다. 사람마다 세배하는 방법이 다른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절 받는 상대에 따라 또한 남녀에 따라 예법을 지켜야 올바른 인사가 된다. 세배는 평절로 하는 것이 무난한데, 여성은 배꼽부근에 오른손을 위로 해서 두 손은 포개고 맞잡은 손을 들어 양 옆구리에 곱게 내려뜨린다. 몸을 낮춘채 살며시 앉아 두 손을 어깨 넓이로 해서 방바닥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이면 된다. 세배 후 몸을 바로 하고 손을 양 옆으로 해서 일어나 다시 두 손을 모아쥐고 몸을 살짝 숙여 목례하면 된다.

남성은 배 중간 위치에서 아랫부분에 왼손을 위로 해서 두 손을 포갠 후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두 손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숙여 엎드린다. 세배 후 몸을 바로 하고 일어나 목례를 하면 되고, 연장자 순으로 올리도록 한다.

8. 승용차 승차 요령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로 하면 업무수행중이거나 상사와 함께 승차할 때 당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친구나 같은 또래의 동료들과 함께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는 아무 좌석에 앉아도 상관 없겠지만, 일단 상사나 손님들과 함께 승용차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앉은 위치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례가 되고 거래상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를 제외하고 3명이 탈 때에는 운전석 뒷자리 우측이 상석이고, 좌측이 둘째 좌석이며, 운전기사 옆이 그 다음 좌석이 된다. 4명이 탈 때에는, 뒷자석 가운데가 말석이 된다. 또 손수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석 옆자리가 상석이 되며, 뒷자리 우측이 둘째 좌석, 좌측이 그 다음 좌석이 된다. 따라서 만약 상사나 선배가 운전을 할 경우, 그 부인이 동승하게 되면 운전석 옆자리가 부인석이 된다.

지프의 경우에는 운전석 옆좌석이, 버스·열차·항공기는 창문 쪽이 상석이 된다.

승차시에는 윗사람이 먼저 타고 아랫사람이 나중에 타야 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승차를 도와준 후 반대편 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릴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내린 후 윗사람의 하차를 도와주는 것이 예의이다.

업무용으로 회사차량을 이용할 때 혼자 탑승할 때는 자신이 사원일 경우 운전석 옆좌석에 앉도록 하며, 간부일 경우도 차량이 임원용이고 기사보다 본인의 연령이 적을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석 뒷좌석이나 옆좌석에 앉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 승강기 탑승 요령

승강기는 조그마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우선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안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손님이나 상사가 먼저 타고 내리도록 해야 한다. 안내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타고 누름키를 조작하여 손님이나 상사를 안내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상대방이 먼저 내리도록 하고 뒤따라 내리면 된다.

승강기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게 되므로 조용히 있도록 하며, 급히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귓속말로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하면 좋

겠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모든 입구를 향해 서 있는데 혼자 반대쪽을 향해 있다거나 하는 행동도 보기에 좋지 않다. 가능한 한 문쪽에 서거나 벽에 비스듬히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자기 타다보면 중량초과 때문에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여 서로 얼굴만 마주 쳐다보는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먼저 양보하는 아량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

여성 보호라는 점에서 여사원을 먼저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호텔 등 공공시설에서는 그렇겠지만 회사내에서는 거의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어디까지나 방문객이나 손님을 우선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 좋다.

10. 문상시나 기타 경조사 참석시 유의사항

경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경조사를 맞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이나 애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대방이나 관계자에게 불쾌감을 준다든가 신경이 쓰일 만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경조사를 맞은 본인에게는 엉뚱하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나 친척의 경조사를 떠들썩하게 알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상대방에게 금전 등으로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경조를 받으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고 답례를 하는 것이 좋다.

문상을 할 때는 간결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통 상례의식이면 향을 꽂은 후 두 번 반의 절을, 기독교 의식의 경우에는 한 번의 목례를 하면 된다. 임신한 여자는 조문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공적인 관계로 상가에 갈 경우에는 영전에 애도를 표하고 오는 것으로 끝내고, 조금 안면이 있으면 조의

와 더불어 흰 카네이션이나 흰 국화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상주에게 하는 조의의 말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가까운 사이일 경우에는 상주에게 망자와 얼마 전에 만났던 일을 이야기한다든가 하면 된다. 즉 "일 주일 전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갑자기…" 정도로 하면 된다. 문상은 반드시 상을 당한 집의 관례에 따라주어야 한다.

출산했을 때는 우선 "순산하셨지요?"라고 물어 아이와 어머니가 다같이 건강하기를 빌어주고 그 다음 축하의 말을 하며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예의이다. 축하의 말은 뒷전으로 미루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라고 묻는 것은 실례이다. 딸인 경우에도 먼저 당연히 축하의 말로서 "아주 예쁜 딸이군요."라고 답하거나, 둘째 역시 딸을 낳았을 때도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신 것을 축하한다."하는 식으로 인사하면 좋다.

제 4 장 삶의 철학과 생의 설계

1. 생의 의미와 계속성

삶은 고해(苦海)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게 된다. 즉 사람들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다.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마치 삶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투덜대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이 가장 독특한 문제라고 믿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지, 그렇게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이 왜 나인가? 왜 내 가족인가? 왜 내가 속해 있는 집단만이 이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하게 된다. 그러나 눈을 돌려 이웃을 보면 이웃이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고 역사 속에 살다간 조상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고 모를 뿐이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아무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포기하고 싶어지는 삶의 경험을 안해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한 고통 중에도 우리는 살아왔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했을까?

북한이탈주민의 한 사람은 자신들은 고생을 많이 한 불굴의 영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독재가 실시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무시된 북한에서 기적과도 같이 탈출한 사람이라고 한다. 수백만의 인구가 굶어 죽고 얼어죽고 맞아죽는 처참한 죽음의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국가의 승인 없이 외국에 가는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들까지 중세기적인 연좌법으로 물리적 탄압을 받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경을 넘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이겨내면서 또는 죽음을 당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동은 결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장난이 아니었다. 항상 체포와 강제송환의 올가미를 숨어 다녀야 하고 함께 있던 동료가 중국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끌려갈 때 그가 북한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체험, 배가 고파 열대림의 독 있는 과일을 먹고 죽을 뻔했던 경험, 체포를 피해 움막 속에서 추워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던 체험을 하면서도 동포의 나라를 찾아 자유를 찾아 끝까지 노력하며 입국했던 탈북자들은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 분명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었다고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고통의 현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고 역사속에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당해야 했던 일들도 이와 처지가 유사했다. 아니 나치들은 더 잔인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역사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은 심리치료학자이다. 그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찾아오는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의 물음에 답하는 환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할 방법을 찾아낸다. "아직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에...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재능 때문에… 아직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러한 대답이 삶을 유지시키는 의미인 것이다. 빅터 프랭클이 로고테라피를 발견하게 된 경험은 이렇다.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된 장기수로서 짐승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 있지 않았다.

ㅇ 그의 부모, 형제, 아내, 친구들은 모두 강제수용소에서 죽었거나 가스실로 보내졌다.
ㅇ 모든 소유물을 빼앗겼다.
ㅇ 모든 거치는 파괴되었고
ㅇ 굶주림과 추위와 온갖 잔혹행위에 시달렸다.
ㅇ 온 몸에 솜털 한 오라기도 남지 않고 모두 잃었다.

벌거숭이가 된 인생 외에 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었다. 수용자의 90%는 화장터로 끌려가 연기구름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다. 어제 곁에 있던 친구가 오늘 연기 구름이 되어 하늘로 사라져 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다.

ㅇ 식량으로 140g의 빵 한 조각이 나흘동안의 유일한 식량이었다.
ㅇ 감정적 고문은 집과 가족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이 감정은 더욱 강렬해져서 그리움으로 자신이 소모되어가는 느낌을 갖게 했다.
ㅇ 수용소 막사들 사이는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이런 배설물을 운반하는 동안 오물이 얼굴에 튀기 마련이다. 이 때 죄수가 싫은 표정을 짓거나 닦아내려 하면 죽도록 매를 맞아야 했다.
ㅇ 12세 소년이 들것에 실려왔다. 소년은 맨발로 몇시간이나 눈위에서 차렷자세로 서 있거나 맨발로 옥외 노동을 해야 했다. 수용소에는 그에게 맞는 신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상에 걸렸고 당번의사는 시커멓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남은 발가락들을 쪽집게로 하나하나 뽑아냈다.
ㅇ 전염병인 발진티푸스 환자는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 사람들은 환자가 죽으면 아직 체온이 남아 있는 곁으로 다가갔다. 온기를 느끼기 위해...
ㅇ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한 감자를 움켜잡았다. 시체의 나막신, 외투, 구두끈 등 자기 것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모두 벗겨갔다.

그래도 삶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ㅇ 마음속에 간직한 추억 때문에

ㅇ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더 보고 싶어서

ㅇ 어슴프레 저물어가는 석양과 나무를 보기 위해

그는 의사가 되었고 마음에 고통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가 그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주는 메시지는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삶에서 굶주림, 굴욕, 두려움, 부당한 취급에 대한 깊은 분노는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에 의해 종교에 의해 때로는 나무 한 그루와 어느날 우연히 보게 된 저녁 노을과 같은 것들이 그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고 했다. 벌거벗은 삶외에 아무것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겉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듯해도 자신의 삶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을 보존하려는 계획이 재빨리 세워진다고 하였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역사와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각 개인에 따라 저마다 다르고 독특하다. 어떤 사람, 어떤 운명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운명과 비교될 수 없다. 어떤 상황도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으며 그 때마다 다른 반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자신의 선택이 제시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2. 생애 목표 설정과 실천

이미 하나원을 거쳐 나간 선배들의 남한사회에서의 미래의 꿈은 연령, 학력, 자신의 과거와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기만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은 대개 비슷했다고 보여진다. 유아나 아동들은 부모의 품안이 세상이며 부모가 만들어 주는 환경대로 적응해 갈 것이다. 청소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동들은 학과의 차이나 언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남한아이들과의 갈등을 종종 겪는 경우도 본다). 청년과 장년층은 기업을 차려서 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환경산업 즉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사업 등). 자격증을 따서 직업을 갖겠다(자동차 정비 등), 그리고 돈을 많이 번 후 약 30년 후쯤엔 북한에서 사업을 펼치고 싶다고도 한다. 물론 통일을 전제로 할 때이다. 여성들은 대다수가 요리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미용실, 피부관리실을 차리고 싶어한다. 간간히 여성기업가가 되어 성공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노인의 경우 남아 있는 생애에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일하며 살아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공통된 바람은 고향(북한)에 가고 싶다는 것이다. "취업해서 돈 벌면 북에 두고 온 자식 만나러 가고 고향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 주고 싶다. 돈보다 알차고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1)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의 기준

(1)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와 관심, 흥미분야 선택(심사숙고)

(2) 생계유지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수입

(3) 사회에 대한 기여도

(4) 실현가능한 것

(5)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계획수정도 가능하다는 유연성을

가질 것

삶은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같은 일만 계속하면서 고정관념을 갖고, 융통성이 없는 것은 노화 증상의 으뜸인 경화증상이다. 같은 일을 해도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의식경화증은 동맥경화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낙오자가 안된다. 북한에서 아침식사, 중국에서 점심식사, 저녁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다. 세상은 좁아졌고 우리는 전세계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2) 값진 삶을 이루기 위한 시간활용

(1) 인생을 결정하는 황금시간은 새벽이다.

(2)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3) 차안에서의 시간 활용이 성공을 앞당긴다.

(4) 퇴근 후의 시간을 활용하라.

(5)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6) 동시처리 기술을 몸에 익혀라.

(7) 내가 안 해도 될 일은 남에게 이양하라.

(8)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사용명세표를 만들자.

(9) 잘못된 습관은 철저히 벌을 주라.

(10) 틀에서 벗어난 시간을 만들자.

3)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인간관계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간다. '사람의 사회적 성공과 실패가 절대적으로 인간관계에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기술이나 능력은 18%에 불과하고 82%가 인간관계에 있다고 한다. 오늘날 인간소외, 이웃의 상실, 도시의 익명성, 빈부차이 등 계층의 차별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생

태계 파괴는 절대적으로 인간관계의 부조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반성하는 겸허한 자세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공중식당,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조용히 하도록 교육하는 것, 예배를 드릴 때, 병원에서 기다릴 때, 차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할 필요가 있다. 남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타인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한다.

참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칭찬 받을 때 용기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상대방의 장점을 알고 칭찬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3) 작은 도움부터 베풀어 본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살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해해 주고 몇 마디의 위로나 격려의 말은 그 삶에게 용기를 주어 새롭게 한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나누자.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남을 돕는다. 〔시편 112편 5절〕 :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4)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인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주장이나 변명만 늘어 놓는다. 그러나 타인의 말에 진실로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다. 〔잠언 10장 19절〕 :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로마서 12장 15절〕 :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말라.

(5) 의무를 초월해서 일한다.

상농(上農), 중농(中農), 하농(下農)을 생각하고 자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설정한다. 상농의 한 예를 들어본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가구점에 할머니 한 분이 가구를 구경하고 있었다. 가구점 주인이 "가구 사러 오셨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아니요.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고 내 운전자가 차를 가져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리저리 본다"고 했다. 주인은 "운전자가 올 때까지 들어와 계십시오. 아주 좋은 안락의자도 있습니다"라며 그 노인을 안으로 모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이 가구점 주인은 아무 관계도 없는 노인에게 자기가 해야 할 분수를 넘어서 친절을 베풀었다. 이 후 가구점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는데 강철 왕 카네기에게서 온 편지로 수 만달러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는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잠언 28장 20절〕 :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6)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에 감사를 표시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도움을 받은 것과 베푼 것에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7)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예의바른 언어사용과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며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세, 몸이 상대에게 부딪힐 때 길을 비켜달라고 할 때도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민족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한다. 〔잠언 16장 32절〕 :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빨리 성을 내고 나면 자신이 못나 보이고 후회가 된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화를 안내고 대화로 일을 풀어 가는 것이 좋다.

(8) 타인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타인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진정으로 존경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은 점이 있다면 그대로 배울 것이며 잘못된 일이 보이면 자신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받쳐주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은 다 떠나가서 지극히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만다. 삶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며 나쁜 인간관계를 맺으면 실패와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4) 위와 같은 삶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자세

(1)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2)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3) 기쁘게 일한다

3. 인류에 공헌하는 생의 운영

미래는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순간 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데 도움

이 되는가? 늘 생각해 보면서 매 순간 항상 새롭게 삶을 점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살인 전과자 윤씨의 사랑의 장기기증

윤씨는 살인죄로 '86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13년간 마치고 '99년 4월 부처님오신날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인 박씨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다. 박씨는 신장이식수술로 생명을 건졌고 건강한 삶을 찾았다. 이런 감동적인 나눔에 박씨의 부인은 이에 보답하고자 광주에 또 다른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사랑의 릴레이가 이어졌다. 윤씨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후 "한 순간의 실수로 남의 목숨까지 빼앗은 놈이지만 사람노릇 한번 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나머지 삶에 보람과 의미를 찾아주었다고 하였다.

2) help me 아줌마의 고아 양육과 교육

평생 사생아(약 500여명)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대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돌아다니며 양말장사를 하였다. 아줌마는 생활비를 월 1만원을 쓴다고 하였다. 평생 연탄을 때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추우면 방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연료비를 아꼈다고 한다. 지금은 늙어서 다리도 아프고 양말도 예전같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 돕고 있는 아이가 대학갈 때까지 만이라도 살아서 뒷바라지 해주어야 할텐데... 걱정하는 아줌마의 인생은 우리에게 진한 무엇인가 느끼게 한다.

3) 배고픔과 호텔 사장

지금은 큰 호텔의 사장이 된 분이다. 그 분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고아원에서 주는 밥이 작아 누룽지를 훔쳐 먹다가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까지 죽도록 매맞은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성공한 이후로 장애인이나

능력 없는 사람들이 식사를 원하면 자신이 손수 요리를 해서 융숭한 대접을 한다. 어느 날 나의 학생들이 운영하는 그룹홈 장애인들은 그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을 기회가 있었다. 손수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셨다. 자신의 손님이라고 하시면서... 장애인들이 다 먹고 남긴 밥과 반찬이 모아지자 많이 남겨진 음식들의 이 자국을 칼로 베어내고 깨끗한 부분으로 한 접시를 만들어 드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4) 하나님의 몽당연필 마더 테레사

키 150cm, 맨발에 샌들, 사리 한 벌, 5루피가 그가 인도에 올 때 가지고 온 전부였다. 테레사 수녀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20년간의 세월을 보냈다. 그가 인도에 와서 수녀가 되고자 수련 받던 중 벵골만 바다에 돌을 던졌다. 파문이 일었으나 작았고 곧 사라졌다. "그래 저 돌맹이처럼 나의 작은 힘은 벵골만의 빈곤과 질병을 극복하기엔 너무 작은 보잘 것 없는 힘이야." 라고 생각했다. 다시 돌을 던졌다. 그러자 파문이 일었다. 또 돌을 던지고 또 던지자 파문은 계속되었다. 이때 테레사 수녀님은 "바로 이것이다. 사랑의 실천을 끝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파문은 계속 이어지겠지." 이러한 신념으로 벵골만의 빈곤과 질병을 굴복시키고야 말겠다고 다짐하였다. 인도 힌두교 폐사원의 한 귀퉁이에 버려진 아동, 장애인, 노인을 모으며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4,400명이 이곳에서 얻어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만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테레사님은 말씀하셨다. 수녀님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판문점의 얼어붙은 땅을 방문하였다. 아직도 북한은 기본욕구 충족, 배고픔도 해결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아픔을 동반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사회를 가난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함께 가난을 나누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셨다.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적게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가난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누는 여

유, 가난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분은 무소유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풍요의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를 감동으로 몰아넣었다. 그 분의 죽음 앞에서 테레사 수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지들이 장례에 참가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냄새나 더러움으로 깨끗한 조문객에 누가될까 앞자리를 비워두고 자신들은 뒷자리에 참석하는 배려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벵골만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인간소외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들이 우려되는 세상에서 그 분의 뒤를 따르는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어두운 곳,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의 파문을 나부터 만들어 보자.

4. 생애 설계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과 다른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들고 지치는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그 희망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의 인생설계를 시작해 보자.

이 름 :

단 계	연 도	연 령	희 망 하 는 목 표
현 재	2001		
5년 후	2006		
10년후	2011		
20년후	2021		

"그대 아끼게나 청춘을
이름없는 들풀로 사라져 버림도
영원히 빛날 삶의 광영도
젊은 날 시간의 쓰임새에 달렸거니
오늘도 가슴에 큰 뜻 품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게나 "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알고 힘을 기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과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사리를 판단할 때 고집으로 인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사심이 없는 판단을 하며
또한 평탄하고 안이한 길만이 삶의 전부라 생각지 말게 하고
고난에 직면할 때 분투 노력할 줄 알며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이 설정하되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에 더하여
삶을 엄숙하게 살아감은 물론 유머를 알고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제 5 장 법과 시민생활

1. 이론적 설명

1) 법의 특성

- ㅇ 법은 매우 어렵다.(어려운 법률용어, 한자가 너무 많다. 남쪽 사람들도 잘 모른다)
- ㅇ 법을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 상식적인 법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변호사나 법률상담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2)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는 "법치주의"이다.

- ㅇ 법치주의 = "법대로 한다", "법의 홍수시대"
- ㅇ 북 = 수령의 교시 〉당의 정책 〉법령
  남 = 법치주의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ㅇ 법은 누가 만드는가?
  헌법 : 국회의원 2/3 찬성 + 전체국민 과반수 동의
  법률 : 국회의원 과반수 / 명령 : 대통령 및 행정 각부 장관
  조례, 규칙 : 지방의회, 도지사(시장)

4) 각종 생활영역별 적용법률

- ㅇ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 = 헌법
- ㅇ 관공서 등 일상적 행정기관 = 행정법
- ㅇ 의식주 문제, 가족 문제 = 민법
- ㅇ 직장생활 = 노동법

ㅇ 상거래 회사운영문제 = 상법

ㅇ 범죄와 처벌 = 형법

ㅇ 각종 재판절차문제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쉽게도 도움을 받기에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1) 각종 법률상담, 자문기관

ㅇ 각 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02-3476-8080(무료법률상담 4번)

수원지방변호사회 031-216-0646, 인천지방변호사회 032-421-2170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은 국번없이 132번, 그외 지역은 지역번호에 132번을 누른다.(상담직원과 직접 전화상담을 원하면 기타법률 9번을 누른다)

ㅇ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 02-780-5688, 수원 031-243-4600, 인천 032-438-1114

2)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

ㅇ www.oseo.com ㅇ www.digitallaw.co.kr ㅇ www.lawsee.com

ㅇ www.lawnb.com ㅇ www.lawtizen.com ㅇ www.lawever.co.kr

3) 쉽게 읽을 수 있는 생활법률책

ㅇ "재미있는 법률여행"(민법, 가족법, 형법, 형사소송법), 한기찬 변호사 지음, 김영사 출판

ㅇ "혼자 소송하는 법", 하승수 변호사 지음, 사계절 출판

○ "참여연대와 여성시대의 숨은 권리찾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지음, 사계절 출판
○ "만화로 읽는 생활법률", 현동훈 변호사 지음, www.lawing.co.kr

3. 구체적 사례

1) 보증 제도

북한출신인 (갑)은 정착교육을 받은 후 남한사회에 나와 직장에 취직을 하였다.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남한출신 (을)이 은행에서 돈을 1,0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여 거절하기도 어려워 보증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당시 (갑)은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을)이 말하기를 자신이 책임지고 갚는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을)이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그래서 은행은 보증을 선 (갑)에게 책임을 지라면서 (갑)의 정착지원금에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결국 재판결과 (갑)은 보증선 돈 1,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을)은 자신이 돈이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갑)을 위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2) 이혼 제도

북한출신 남성인 (갑)은 남한사회에 와서 남한출신 여성인 (을)과 결혼을 하였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어 생활을 하던 중, 사소한 일로 처와 다투다가 처가 말대꾸를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한 두 번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처인 (을)은 손찌검하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면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걸어 와서 이혼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폭행 사건

북한출신은 (갑)은 같은 북한출신 친구인 (을)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을)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그만 턱뼈에 금이 가버렸다. (을)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전치 5주)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갑)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갑)을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 (을)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갑)을 구속시켜 교도소로 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을)이 합의서를 써 주지 않고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어야만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한다. 합의서를 받지 못한 (갑)은 결국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갑)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4) 사기 사건

북한출신인 (갑)은 남한사회로 나와 정착금을 가지고 조그만 장사를 해 볼려고 하였다. 그런데 남한출신인 (을)이 (갑)에게 접근하여 돈을 잘 벌 수 있는 장사가 있다면서 자기가 시설을 투자할테니 (갑)에게는 자본을 투자하라고 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을 하였고 그럴 듯한 가게도 보여 주는 등 (을)이 마치 좋은 사람이며 사업을 잘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갑)은 (을)을 믿고 가지고 있던 돈을 (을)에게 투자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을)이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려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갑)은 돈만 사기당하고 말았다. (갑)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5) 교통사고

북한출신 (갑)은 남한사회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였다. 어느날 밤길에 매우 조심하여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남한출신 (을)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을)은 다리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는 등 많이 다치게 되었다. (갑)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4. 생활법률

1) 민사법

(1) 금전거래관련 법률상식

〈사례1〉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증서를 주고받자

서울에 올라오면 취직시켜 준다는 홍식이의 말을 믿고 춘섭이는 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해 주신 100만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홍식이는 춘섭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춘섭이에게 자기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자고 제안했다. "그 대신 네가 갖고 있는 100만원 나좀 빌려주라! 한달 뒤에 꼭 갚을게." 춘섭이는 홍식이 덕분에 빌딩 경비로 취직되었고 숙식할 곳도 해결되자 방을 얻은 셈치고 홍식이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지 1 년이 다 되어도 홍식이는 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요즘들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돈이 궁해진 춘섭이는 홍식이에게 꾸어간 돈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홍식이는 내가 언제 돈을 빌렸냐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춘섭이가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홍식이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걸 본 사람이 있냐, 그렇다고 차용증이 있냐?"고 말한다.

춘섭이는 과연 홍식이에게 빌려준 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악질 사채업자에게 말려들지 않으려면?

춘섭이는 사업상 급히 100만원이 필요해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쉽게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지하철 입구에서 아주머니들이 광고지를 나누어 주길래 춘섭이는 광고지에 적혀 있는 사채업자에게 찾아가 이자를

월5부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몇 달 뒤 자금사정이 나아져서 돈을 갚을 수 있게 된 춘섭이는 사채업자를 찾아갔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사무실 문을 닫고 사라져버려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 춘섭이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례 3〉 도박빚도 받을 수 있나?

어느 날 밤 늦게 일을 마친 춘섭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홍식이와 춤선생, 박사장 이렇게 세사람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춘섭이에게 같이 하자고 꾀었지만, 성실한 춘섭이는 아예 춤선생 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가 깨워서 일어나보니 홍식이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5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춘섭이가 이를 거절하자 홍식이는 무릎을 꿇고 큰절까지 해가며 매달렸다. 갑자기 홍식이가 불쌍하게 느껴진 춘섭이는 호주머니에서 5만원을 꺼내주었다. 홍식이는 "조금 있다가 10만원으로 갚아줄게!"라고 큰소리치고는 화투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 날 이후 홍식이가 사라져 버렸다. 알고보니 그날 화투판에서 홍식이는 박사장에게 200만원의 빚을 지고 도망을 갔던 것이다. 박사장은 매일같이 노름빚을 받으러 자취방을 찾아와 애꿎은 춘섭이를 못살게 굴었다. 춘섭이는 그때마다, "저도 그놈에게 5만원을 받아야 돼요. 그 자식 있는 데를 알면 이러고 있겠어요."라며 돌려보냈다. 과연 박사장은 홍식이에게 빚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춘섭이는?

(2) 부동산매매관련 법률상식

〈해설〉 부동산(건물,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3) 가족관계관련 법률상식

〈사례 4〉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력의 차이는?

춘섭이는 호순이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런데 춘섭이는

직장생활이 바쁘다보니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춘섭이는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였다. 다행히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춘섭이에게는 친척으로는 사이가 좋은 않은 삼촌만이 한 분 계셨다. 이 경우의 춘섭이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는가?

〈사례 5〉 아내의 빚, 남편이 책임져야 하나?

춘섭이는 자기 돈을 빌려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난 호순이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시장에서 식당을 경영하며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순이는 이웃상인들에게 모두 천만원이란 돈을 빌려 또 다시 사라져 버렸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모두 춘섭에게 몰려들어 빚을 갚으라고 야단이다. 춘섭이는 아내가 진 빚이므로 남편인 자기가 갚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도망가버린 아내의 빚이니까 갚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했다.

과연 춘섭이는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할까?

(4) 물품구매관련 법률상식

〈사례 6〉 요구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보내왔을 때는?

판매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춘섭이 앞으로 운동기구를 보내왔다. 그리고 동봉한 안내서에는 "필요없으면 반품을 요하며, 며칠 안에 반품이 없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춘섭이는 물건을 되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 그만 물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날 판매회사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때 춘섭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 7〉 방문판매 상품을 되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춘섭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호순이가 외판원에게 책을 사 놓았다. 춘섭이가 살펴본 결과 그런대로 볼 만한 책이긴 했다. 하지만 책값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책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춘섭이는 즉시 책 판매회사에 연락해 책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책을 반품하려면 책값의 절반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과연 춘섭이는 책을 반환할 때 그 회사의 요구대로 책값의 절반을 내야 하는 것일까?

(5) 각종 사고시의 손해배상

〈사례 8〉 일하다가 다친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춘섭이는 직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옆 동료의 실수로 눈을 다쳐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다. 춘섭이는 현재 만30세이고, 월수입은 평균 100만원 정도였다.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2) 형사법

(1) 경범죄처벌법(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00원, 30,000원, 20,000원의 범칙금

16.(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3만원)·쓰레기·죽은 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5만원)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7.(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3만원)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5만원)

20.(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5만원)

24.(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5만원)

25.(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5만원)

26.(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3만원)

48.(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5만원)

49.(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2만원)

52.(뱀 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3만원)

54.(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 지하철구내, 버스, 기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 석유, 가스, 화약류 등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또

는 승강기에서 담배피운 사람(3만원),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담배피운 사람(2만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51.(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53.(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업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2) 형법

〈1〉 살인, 상해, 폭행 등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간, 혼인빙자간음, 간통 등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살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3〉 절도, 강도 등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3.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부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중에 운전한 경우
8. 주취중에 운전한 경우
9.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1〉 수사절차의 개요

수사의 개시 - 수사 - 수사의 종결 - 공소의 제기(기소) - 공판절차(인정신

문/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 최종변론 / 판결선고) - 재판의 확정 - 재판의 집행

〈2〉 중요내용

수사기관 / 고소 / 수사개시와 입건, 피의자 / 체포와 구속 / 구속과 불구속 / 체포구속 / 적부심사 / 기소와 불기소, 기소유예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 보석 / 형사보상제도

제 6 장 여성의 지위

1. 한국의 여성지위 지수

(2000. 1 기준; 조선일보 2000. 6. 9)

	의회 점유율(%)	여성고용비율(%)	여성지위 지수 순위
노르웨이	36.4	51	1
스 웨 덴	42.7	51	2
덴 마 크	37.4	48	3
한 국	3.7	39	78

※ 출처: '유엔 여성개발 기금' 특별 총회 보고서(2000. 6. 5 - 6. 9)

2. 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전통사회에서의 가족과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매우 큰 변화가 있었으며, 지난 30여년 동안에도 그 변화는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한 축인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음의 내용은 1960년대 가족과 1990년대 가족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변화된 가족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음미하고자 함이다.

1) 가족구조의 변화

① 가족규모의 축소 :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가족규모는 더욱 축소되는 경향이다.

② 가족세대의 단순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 확대 가족 비율이 축소되고, 노인단독가구, 편부모 가족, 별거가족 등 가족 형태는 더욱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③ 친족관계의 변화 : 친족 범위의 축소 및 친족 유대의 약화가 일어나

며, 부계에서 양계제로 진행되는 경향이다.

④ 가족안정성의 변화 :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⑤ 가족주기의 변화 :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다.

2) 가족기능의 변화

① 경제공동체의 기능 : 생산기능이 상실 또는 약화되어 가족과 일터의 분리가 일어났으며, 소비의 기능은 강화되었다.

② 성행위와 출산통제 기능 : 성과 출산통제 기능은 약화되고 부부간의 성생활 기능은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③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은 국가와 공유하는 추세이다.(예: 유아교육 등)

④ 정서적 유대 및 여가 기능 : 가족의 정서적 유대 및 여가 기능은 강화되어가고 있다.

⑤ 성 역할 사회화 기능 : 가족 내에서의 성 차별적 사회화는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남아선호사상은 아직 잔존한다.

⑥ 가사노동 기능 : 가사노동은 사회화, 상품화,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⑦ 사회보장 및 지위계승의 기능 : 사회보장 기능은 국가와 공유하며, 가족의 지위계승 기능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

① 부부관계 : 전통주의→신 전통주의→평등주의(부부맞벌이형→역할공유형→역할전도형)의 부부관계로 이행되어 가는 추세이다.

② 부모-자녀관계 : 부모결정형→상호의논형, 권위주의→역수직 관계, 성차별→성차별 완화로 이행되고 있다.

③ 노부모-자녀관계 : 지배 및 복종 관계 → 소외 및 부담스런 관계 → 노인부양의식 약화 → 노후 의존도 약화로 이행되고 있다.

3. 학교에서의 여성교육 변화

오늘날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장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성역할의 변화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역할 변화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여성교육은 여성의 인권문제, 자아실현의 문제, 평등의 문제, 역할기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 갈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교육 내지는 미래교육의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구 분	구 여성교육 개념	신 여성교육 개념
교육의 기본방향	여성화(현모양처, 부덕)	인간화(인간적 자아실현)
교육의 강조점	가정적 재능력	사회화된 태도와 능력
교육의 성차관	남녀 차별주의	개성화
교육제도	남녀별학	남녀공학
교육내용 및 방법	남녀차별	차별철폐
교육개념	여성 교육	탈 여성 교육

4. 직장에서의 여성문제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결혼 연령의 상승, 자녀수의 감소, 가전 제품의 보편화 등으로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동시에 빈부 격차의 확대, 늘어만 가는 생계 필수품의 구입, 막대한 교육비와 세금 및 여성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의식 확대 등으로 여성의 취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 저임금과 차별임금의 문제 : 일반적으로 취업 여성들은 남성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차별 임금을 받고 있다.
2) 전문직 배제의 문제 : 여성의 취업은 보수가 높은 전문 직업보다 대개는 보수와 위세가 낮은 부문에서 고용되는 직종 분리에 따른 차별의 문제가 있다.
3) 불완전, 불안정 고용형태의 문제 :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아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취업 의사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 가정에 머무르는 잠재적 산업 예비군으로 남아 있다.
4) 승진, 승급 기회의 문제 : 승진, 승급의 기회가 남성에 비해 늦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5)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 여성은 생산 현장에 참여할 때도 당연하게 가사노동 역할을 요구받으며, 때로는 취업 여성이 가사 노동을 조금만 등한시해도 여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5. 정치에서의 여성의 지위

정치에서의 여성소외는 두드러지며,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도 양성간 불평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제한점은 첫째, 성역할의 제한으로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역할은 정치 역할에 합당치 못하며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인 제한으로 역할과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으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도적인 제한으로 선거자금의 조달, 정당의 공천 및 후원단체의 부재

등이 중요한 제한점으로 열거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의 의식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적인 노력과 사법부의 여성 능력 인정 및 행정부의 고위직 여성능력활용 등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양성불평등 의식의 타파와 세계 여성들과의 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6. 법에서의 여성의 지위

법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문화활동, 사회운동, 정치 활동은 결국 법률로 정해짐으로써 그 성과를 드러내게 된다.

1) 민법 : 친족 상속편(가족법)

1980년대의 여성계의 가족법 개정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호주제도 철폐,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범위 차별 철폐, 동성동본 불혼 철폐, 혼인외 소생 자녀와의 모자 관계 철폐, 남편 위주의 혼인 제도 철폐, 이혼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 부여, 재산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서 아내의 기여분 인정 등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1990년 개정 가족법에 많은 부분이 수용되었다.

2) 특별법

뿌리깊은 고정관념에 의해 발생되는 성차별과 여성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왔고, 이러한 특별법은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계의 노력이기도 하며, 한편 성불평등의 현존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①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1995년, 1999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년, 1997년)

③ 가정폭력방지법 제정(1997년)

④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7)

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6)

7.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

대중매체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분석과 이 내용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새로운 관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중매체의 종류에는 신문, 잡지, 방송, 연극, 영화, 만화, 비디오, 음반, 광고 등이 있으며 이 중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광고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남성과 여성의 묘사로 요약될 수 있다.

①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권위 있고, 전문적이고 중요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② 남성이 여성보다 주역을 더 많이 맡고 있다.

③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다.

④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수준이 더 높다.

⑤ 남성이 여성보다 행동적 성향이 더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성구분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 7 장 이성과 결혼

1. 이성의 발달

성은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지만 이차적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를 전후하여 확실하게 성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남녀의 외형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성호르몬을 들 수가 있는데 남성은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는 시기로서 이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도 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의 개념과 자신의 성적 정체감이 정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성에 대한 경험도 이 시기에 시작된다. 최근에 성적 개방 경향이 높아지면서 이른 시기에 성적 경험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2) 결혼 전 성인기

성인이 된 후 결혼 전까지 다양한 사랑과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의 유형에 따라 성적 친밀감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된다. 최근에는 애정의 정도가 깊어 성 허용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 관계도 괜찮다는 응답이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

3) 결혼 후의 성

부부의 성은 그들이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방법이나 성과 관련되지 않은 다

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부부관계에서 성의 중요성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고 있다. 즉 성 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성 관계를 갖는 사람이 부부관계에서 만족한다.

4) 중년기

나이가 들면서 성적 관심이나 능력 그리고 성적 반응도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여성의 폐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폐경기는 주로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에 시작되지만 30대 후반부터 폐경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보다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50세를 넘어서면 혈청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정상 이하로 낮아져 성적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는데, 생식능력을 잃지 않는 점이 여성과 다르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성 기능을 상실한다고 여기는 두려움은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5) 노년기

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노인에게 적합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과거부터 내려온 고정관념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도 성적 활동은 가능하다. 성적 활동이란 손을 잡는 행위부터 성 관계까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는 데도 불구하고 성 관계만으로 좁혀서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을 중성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2. 사랑의 발달

발달심리학에서는 사랑의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에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기 및 사춘기를 통한 가족과 그 밖에 다

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발달한다고 본다. 사랑하는 능력은 사랑을 받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모방의 대상을 통하여 그리고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성격적 성숙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얻어지는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다고 한다.

1) 사랑의 시작

갓 태어난 아기가 보이는 최초의 행동은 그의 생물학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다. 이것을 '접근행동'이라 부르며,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생 동물들에서도 볼 수 있다. 사람의 경우 유아에서는 이것이 돌봐주는(먹여주는) 부모에 대해 강하게 끌리는 행동(애착)으로 나타난다. 이 끌리는 행동은 인간이 나타내는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원초적 형태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

2) 사랑의 요소(R. Sternberg)

① 친밀감 요소 : 친밀감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깝고 연결되어 있으며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일컫는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경험하는 따뜻함과 같은 느낌들이 포함된다. 친밀감을 나타내는 열 가지 징표(사랑하는 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열망함;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을 경험함; 사랑하는 이에 대해 존경심을 가짐; 필요할 때 그에게 기댈 수 있음; 서로 이해함; 상대와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음; 상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음; 상대에게 정서적 지지를 줌; 상대와 친밀한 의사소통을 함;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이의 가치가 높이 평가됨)

② 열정 요소 : 열정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인 몰입 같은 것들로 이끄는 욕망을 말한다. 많은 관계에서 성적 욕구가 열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 타인과의 친화, 타

인에 대한 지배, 타인에 대한 복종, 자아실현 같은 욕구들이 열정이라는 경험에 기여하기도 한다.

③ 결심/헌신 요소 :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적으로 그 사랑을 지속시키겠다는 헌신을 말한다. 그러나 사랑의 결심/헌신의 두 측면은 함께 갈 필요는 없다.

3) 사랑의 분류

사랑의 세 요소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결합을 시도해 보면 여덟 가지 하위 요소를 얻을 수 있다.

(1) 친밀감 요소만 있는 경우 : 좋아함

강한 열정이나 장기적 헌신 없이도 상대를 향해서 친밀감,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 따뜻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2) 열정 요소만 있는 경우 : 도취성 사랑

'첫 눈에 반한 사랑' 혹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상화시키는 망상으로 치우치는 사랑이다.

(3) 결심/헌신 요소만 있는 경우 : 공허한 사랑

몇 년 동안씩 서로간에 감정적 몰입이나 육체적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체된 관계에서 가끔 발견되는 종류의 사랑이다.

(4) 친밀감-열정 요소의 결합 : 낭만적 사랑

낭만적 사랑은 서로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이지만, 헌신은 필수 부분이 아니다(연인관계).

(5) 친밀감-헌신 요소의 결합 : 우애적 사랑

열정의 주된 원천인 육체적 매력이 약해진 오래된 우정 같은 결혼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랑이다. 낭만적 사랑은 차츰차츰 우애적 사랑으로 변하면서 남게 된다.

(6) 열정-헌신 요소의 결합 : 얼빠진 사랑

헐리우드 영화나 급행구혼에서 접하게 되는 종류의 사랑이다. 즉 남녀가 어느 날 만나서, 약속하고 곧 결혼한다. 서로간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데 시간을 요하는 상대에 대한 몰입 없이 열정에 근거해서 결심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체가 없어 보인다.

(7) 친밀감-열정-헌신 요소의 결합 : 성숙한 사랑

성숙한 혹은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할 때 생긴다. 성숙한 사랑을 얻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8) 모든 요소의 부재 : 사랑이 아님

사랑이 아닌 상태는 사랑의 세 요소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수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

3. 결혼제도

1) 약혼

법률상 남자는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약혼이 가능하며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써 성립된다.

약혼은 친척이나 친지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는 공표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부부가 될 사람들로 결정화되며, 결혼준비 및 두 사람의 관계를 검토하는 기능을 갖는다.

약혼식은 신부 측에서 양가의 친척들을 모시고 의례를 행하였으나 근래에는 언약식, 상견례 등으로 간소화하는 추세이다.

파혼할 경우 다음의 사유가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다(민법 804조). :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성병, 유전 질환 등 불치의 악질이 있을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결혼을 할 때; 약혼 후 타인과 간통할 때; 약혼 후 2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지연할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이다.

2) 결혼

혼인제도는 성의 조절체이고, 경제제도의 기본이며, 혼인법을 통한 규범을 갖고 있고, 종교적 또는 관습적으로 신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발생시킨다.

현대적 의미에서 결혼이란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해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자유 의사에 의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도적 측면에서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공인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혼인 당사자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동성혼이 아니어야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혼인의 무효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등인 경우이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 적령에 미달된 경우,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 동성혼, 중혼, 악질 등 중대 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이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될 때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현대적 결혼식

현대 결혼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예식날짜 선정 : 혼인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양가의 직업, 예식장의 사정, 신부의 생리일, 손님이 참석하기 좋은 날, 신부집의 혼수 준비, 신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예식장소 선정 : 80%이상이 예식장을 이용하며, 교회, 성당, 법당 및 회관, 학교, 야외, 호텔 등을 이용하며, 예식장 비용은 양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다.

③ 주례 위촉 : 종교 지도자, 학교 은사 등이 좋으며, 결혼 2-3주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찾아뵙고 부탁드리는 것이 예의이다.

④ 청첩장 : 손님의 범위는 친척, 동료, 은사, 동창생, 직장의 상사로 미리 명단을 작성해서 준비하며 늦어도 일주일 전에 도착하도록 보낸다.

⑤ 피로연 및 답례 : 사회자 선정, 내객 접대, 답례 등을 의미한다. 가까운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지만, 부담 없는 물건(예: 우산)으로 답례하기도 한다.

⑥ 예식장 혼인과정 : 개식(사회자 진행)→신랑 입장(혼자 입장)→신부 입장(아버지 인도)→신랑 신부 맞절→신랑 신부 서약→예물 증정→성혼 선언→주례사→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신랑 신부 행진→폐식(사회자 선언)→기념 촬영→폐백→신랑 신부 피로연 장소에서 손님께 인사

4. 결혼생활의 적응

1) 부부간의 인격적 적응

부부간의 인격적 적응이 잘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어떠한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기초가 되며, 원만한 가정생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부의 인격적 적응 정도는 개인의 성숙, 정서적 안정감, 원만한 성격, 감정의 교류, 시간적 요소 등에 달려 있다.

2) 사회문화적 적응

사회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경우에 결혼을 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수십년 이상 구성해 온 양가의 관습이나 가풍들이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의 가

사활동, 공동의 육아 및 적절한 성역할 변화 등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부규칙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제적 적응

금전은 부부로 하여금 같은 공동 목표를 향해 노력하게 하는 결합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금전의 사용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전에 대한 건전한 사용방법과 적절한 태도를 획득하여 부부 모두가 현명하게 계획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4) 성적 적응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성생활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합법적인 욕구의 충족 및 사회의 성에 대한 통제의 방법이기도 하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욕망이 있으며 상호간에 만족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

5. 애정표현 방법

1) 부부간에 애정표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좋아하는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부부간의 애정은 화초와 같아서 물을 주고 가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들어 간다. 부부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3) 애정은 부인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원한다.
4) 상대방에게 애정표현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애정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5) 애정표현은 부부가 서로 창조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
   ① 사회적 장면 :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 자랑하기, 손잡고 같이 걷기, 부인을 위해 차 문 열어주기, 겉옷 받아주기 등등

② 언어 :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기, 인정해 주기 등등

③ 행동 : 집안일 같이 하기 등등

④ 신체 : 서로 신체 마사지해 주기 등등

⑤ 의례 : 생일, 결혼기념일 등 부부만의 의례를 가짐.

⑥ 예외 : 꽃사주기, 선물, 외식 등 예외적 상황 만들기

〈부 록〉

성 폭 력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다.

2.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자료를 통해 본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991년 4월 13일 개소 이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총 상담건수는 25,767회 17,244건이다. 1999년도 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3,692건으로 98년도 2,948건보다 25.2% 증가하였다. 1999년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성폭력 피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6.4%가 여성이고 남성피해는 92건으로(3.6%)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주로 성인 남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힘있는 남성과 어른에 의해 힘없고 지위가 낮은 여성과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피해유형

전체 상담건수 3,692건 중 성폭력 피해상담 총 2,56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강간 41.5%, 특수강도강간 5.1%, 강간미수 3.9%, 일반성추행 32.7%, 성희롱 9.8%, 통신매체이용 음란 3.2%, 남성피해 3.6%로 나타났다.

3) 연령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는 성인 1,147건(56.4%), 청소년 504건(19.7%), 13세 미만의 어린이 510건(19.9%), 미상 103건(4.0%)이었다. 피해자의 39.6%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75.4%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친족 281건(13.2%), 동네사람 273건(10.6%), 직장상사와 동료 570건(22.2%), 데이트 상대 162건(6.3%), 동급생과 선후배 112건(4.4%), 교사와 강사 71건(2.8%)이다. 이는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성폭력을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5) 어린이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은 510건으로 전체 피해의 19.9%를 차지하며 가해자는 친족인 경우가 116건(22.7%)이고 이웃 아저씨, 가게 아저씨, 경비원, 교사 등이다. 이렇듯 어린이를 보호해 주어야 할 주변인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6)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어린이 성폭력의 21.8%를 차지하며 전체 상담 2,564건 중 친족 성폭력은 281건(11.0%)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116건(41.3%), 청소년(14세- 19세 미만)이 100건(35.9%)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77.2%로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3. 성폭력 원인과 증가요인

1) 남성중심적 성문화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주된 요인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순결관, 즉 남성의 성적 욕구는 본능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남성의 성적행위에 대해서 관대, 허용적인 반면 여성에게는 절대적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규범, 성관계를 상호간의 동의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성관계로 간주하는 성인식이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상품화되어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다기능적 소모품이 되어간다. 특히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되고 서구의 성개방 문화가 음란·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지, 도색잡지, 청소년용 음란 저속만화를 통해 들어오고 스포츠 신문들의 가학성, 폭력성이 공공연히 노출되는 현실이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90%이상이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고 음란비디오를 본 후 충동을 느껴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한 경우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

3) 위계적·권위적 사회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교사와 학생, 직상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남자, 어른, 교사, 직장 상사 등에 의해 힘을 갖지 못한 여자, 아이, 학생, 부하직원에 대한 성폭력이 용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관계가 성폭력 발생을 조장하고 있다.

4) 6.1% 의 낮은 신고율

성폭력 범죄가 증가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6.1%의 낮은 신고율을 들 수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흠이 생긴 여자라는 순결 상실감과 이에 대한 멸시가 가져오는 두려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병원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고소에 있어서 법적인 정보의 부재, 증거물을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신고를 꺼리게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해자에게 아무런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성폭력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5)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성폭력 특별법은 아직도 성폭력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명명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는 범죄로 개념 규정을 하자는 여성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여전히 추행이나 강간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고 어린이 진술밖에는 없는 경우, 어린이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6) 사법처리과정의 문제

현재 성폭력 처리과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똑같아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사건을 전담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바른 인식이나 성폭력 수사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4. 성폭력의 통념

1) 성폭력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1989년 법무부 범죄백서에서 보면 강간 신고율이 2.2%이다. 이 신고율로 추산해 보면 한해에 32만건, 하루에 877건, 1시간에 37건, 3분에 2건이 일어나고 있다. 3분에 2명이 강간을 당하는데 누가 자신있게 성폭력이 나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

2)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중 30%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도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까지 분포되어 성폭력이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아는 사람이란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동료나 상사, 이웃집 아저씨나 아는 오빠, 아버지 또는 친인척 등이다.

4)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성관계란 남녀간에 애정이나 친밀감 등을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상호교감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강간은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여성의 뜻과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5)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이 아니라 '남자는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남성 개인의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보다 남성의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6) 여자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아무리 사소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어도 그 분노와 수치심이 몇 달, 몇 년을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순결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자살, 생활 부적응, 정신병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여성 스스로가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7)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저항해도 강간을 피할 수 없다.

8)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강간범 중에는 남달리 포악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멀쩡히 잘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꼼짝 못한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하는 것이다.

9)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 풍토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남성이 아무리 짧

은 반바지와 소매없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노출된 옷을 입은 여성만이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여성이 노출된 옷을 입었다고 해도 성폭력을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10)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 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성폭력의 유형들

1) 직장내 성희롱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지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는 직장내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포함한다. 단 거래처 관계자,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 '직장내'는 업무를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다 직장내로 분류된다. 즉, 사업장은 물론 회식이나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은 모두 해당한다.

(1)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통념

- 직장내 성폭력이란 몇몇 사람의 문제다. (X)
- 직장내 성폭력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X)
-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X)
- 직장내 성폭력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X)
- 직장내 성폭력은 젊은 여성만이 당한다. (X)

(2) 대응책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도 있다(발송시는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야 하고, 핵심이 정확해야 한다. 피해사실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기록해 둔다.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며,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고 상사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직장내 성희롱 규정을 특화시킨 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다. 두 가지 법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만 해당 성희롱 해결에 적절한 법을 적용하여 대처할 수 있다.

2) 데이트 성폭력

일반적으로 데이트 성폭력은 이성간의 데이트 도중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폭력이다. 방금 전에 만난 사람에 의해, 몇 번 데이트를 한 사람에 의해, 또는 약혼한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은 전형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여성의 'NO'가 'YES'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전에 계획된 행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우유부단한 행동은 피해를 입기 쉬우며 가해자인 남성은 본인이 가해자라기보다는 남성다움의 일부분적인 행동으로 합리화하기 쉽다.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갖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

① 남성은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존중해 주어 자기중심적인 사고(남성우월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성차별적인 행동이나 농담을 하여 여성을 무시, 학대

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여성은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고, 평등성을 무시하고 여성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는 남자,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거나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친밀감이 의심날 때에는 일어날 행동에 대하여 나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본다.

6.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1) 상담기관에 전화하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상담기관에서는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해 주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미리 알려주므로 큰 도움이 된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가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시달리게 되므로 심리상담을 통하여 우울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분노를 표출하여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의료적 조치를 위해서는 먼저 절대 몸을 씻지 말고 병원으로 가서 정액채취, 성병검사, 임신유무 검사 등 진찰을 받는다. 외상이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두고 외과에 가서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는다.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지로 싸서 보관한다.

3) 응급조치가 끝난 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해 본다. 법적 조치는 순서와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이루어질 때 실효를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상담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받은 후에 법적인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좋다.

7. 성폭력 상담기관 안내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전화: 529-4271

서울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전화: 2263-6464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상담전화: 739-8858

제 8 장 일반상식

1. 가전제품 사용

♣ 가전제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이용하는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오디오, 전자레인지, 다리미, 가스렌지 등의 물품이다.

1) 텔레비전

① 텔레비전 위에 꽃병이나 습기가 있는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넘어질 경우 습기가 내부에 들어가 고장의 원인이 된다.

② 텔레비전 시청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시력의 약화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③ 텔레비전과 시청자의 눈 높이는 수평으로 한다.

④ 텔레비전 전원과 채널 변경시 리모콘을 사용한다.
리모콘은 텔레비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원거리에서도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기계이다.

⑤ 텔레비전의 먼지를 닦을 때는 습기가 많지 않은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는다.

⑥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은 각 회사에 직접 신청한다.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은 정규채널 이외에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세탁기

① 전원플러그나 스위치는 젖은 손으로 조작 또는 취급하지 않는다.

② 전원플러그는 먼지를 닦아내고, 플러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확실하게 꽂는다.

③ 바닥이 튼튼하고 수평인 곳에 설치한다.

④ 송곳이나 핀 등으로 조작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⑤ 세탁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⑥ 콜드크림이나 올리브기름이 묻은 의류는 세탁기에 넣지 않는다. 세탁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⑦ 50℃ 이상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세탁기통의 플라스틱 부분의 변형 혹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⑧ 세탁기를 청소할 때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빼두는 것이 안전하다.

⑨ 세제를 필요량 이상 많이 사용하면 헹굼이 잘 되지 않는다.

⑩ 세제를 필요량 이상 사용하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적당량을 사용한다.

⑪ 물이 빠지는 옷이나 털이 있는 옷은 다른 옷과 함께 세탁하지 않는다.

⑫ 세탁비누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 세탁물에서 분비된 때가 세탁기 바닥에 붙어있다가 세탁시 물에 묻어나올 수 있다. 이럴 때는 세탁기통에 물을 가득 받아서 락스를 넣고 1시간 정도 불린 후 헹굼을 선택하고 탈수를 선택하여 배수하면 깨끗하게 된다.

⑬ 섬유유연제를 넣은 후에 이틀 방치하면 굳어져서 투입되지 않을 수 있다.

⑭ 섬유유연제가 세탁물에 직접 닿을 경우 세탁물의 부분 변색 및 손상의 우려가 있으며 섬유유연제는 반드시 섬유유연제 투입구에 넣어 사용한다.

⑮ 표백제는 반드시 분말 표백제를 분발 표백제 투입구에 넣어 사용한다.

⑯ 액체 표백제를 사용하면 세탁물이 부분 변색 및 손상될 수 있다.

⑰ 탈수시에는 많은 용량의 빨래를 한꺼번에 탈수하지 않는다. 고장의 우려가 있다.

⑱ 빨래가 엉키지 않도록 털어서 탈수한다.

⑲ 물이 빠지는 옷이나 털이 있는 옷은 분리하여 탈수한다.

⑳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전력소모의 원인이 된다.

㉑ 세탁 후에는 세탁조에 물이 없도록 건조시킨다.

㉒ 세탁이 완료되면 급수호스와 연결된 수도꼭지를 잠근다. 누수의 원인이 된다.

♣ 겨울철 세탁기가 얼었을 경우

① 세탁기의 호스가 얼었을 경우 수도꼭지에 50℃ 정도의 더운 물을 부어 급수호스를 빼낸다.

② 분리한 급수호스를 50℃ 정도의 더운 물에 담궈 놓는다.

③ 50℃ 정도의 더운 물을 세탁기통에 넣어서 10분간 그대로 둔다.

④ 다시 급수호스를 세탁기에 연결하여 세탁기를 동작시킨 다음, 50℃ 더운 물을 조심해서 넣는다.

3) 냉장고

① 원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시 음식이 상할 수 있다.

② 식품보관시 반드시 식품을 식힌 후에 보관한다.

③ 식품끼리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날 음식은 하부에, 조리식품은 위쪽에 보관한다.

④ 냄새가 나는 식품(생선)은 냄새를 흡수하는 식품(버터, 우유)과 멀리 떨어져서 보관한다.

⑤ 유리나 철제용기의 식품은 냉장고 맨 아래에 보관한다.

⑥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저장하고자 할 경우 냉장고 내부온도를 5℃ 이하로 유지한다.

⑦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아야 한다. 10초 열었을 경우 15분 후에야 3~6℃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⑧ 냉기류가 잘 유통되게 식품과 식품, 식품과 냉장고 벽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너무 많은 식품을 저장하지 않는다.

⑨ 야채, 생선, 육류 등 수분이 많은 식품은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보관한다.

⑩ 냉동고나 냉동실에 식품을 보관할 때 날짜를 적어두면 편리하다.

⑪ 냉장실은 1주일에 한번, 냉동실은 1달에 한번 청소한다.

⑫ 장기간 보관해야 할 식품(고춧가루, 멸치, 육류, 생선)은 냉동실에 보관한다.

4) 오디오

① 전원플러그 사용시 습기가 없도록 한다.

② 오디오는 CD, 카세트, 라디오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의 버튼을 선택한다.

③ CD를 사용할 때는 CD의 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CD 사용방법은 테이프와 동일하게 CD난에 CD를 넣고 작동시키면 된다.

④ 오디오는 먼지가 들어가면 소리의 음량이나 기능 작동이 어려우므로 오디오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준다.

⑤ 오디오 청소시 젖은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전자레인지

① 플러그를 꽂을 때는 손에 습기가 없도록 한다.

②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을 때는 레인지용 그릇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③ 건조한 음식은 약간의 습기를 보충하여 사용하고 냉동된 음식은 해동을 시켜 사용한다.

④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레인지 사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나 조작 매뉴얼을 확인 후 기능을 선택한다.

⑤ 전자레인지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사용한다.

⑥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자레인지의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6) 다리미

① 다림질할 경우 반드시 다림질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라벨을 보고 확인한다.

② 섬유의 종류에 따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다림질한다.

③ 건조된 옷감일 경우 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수분을 보충한 후 다림질한다.

④ 다리미는 전력소모량이 크므로 사용할 때 다른 가전제품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⑤ 견 제품을 다릴 때는 반드시 헝겊으로 덮고 다린다.

⑥ 모 제품은 헝겊으로 덮고 물을 약간 뿌려서 다린다.

⑦ 다림질이 끝난 후에도 남은 열이 오래 지속되므로 손수건이나 넥타이 같은 작은 소품들은 플러그를 뺀 후 남은 열을 이용하여 다린다.

⑧ 사용 후 다리미의 보관은 남은 열을 식혀서 보관하고 다리미 전선은 끊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줄을 꼬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7) 가스레인지

①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밸브나 코드를 검사한다.

② 외출시에는 항상 중간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한다.

③ 가열시 용기의 내용물이 넘치지 않도록 한다.

④ 가열시 가스 냄새가 날 경우 조리를 중단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⑤ 가스레인지를 청소할 때는 용기를 분리시켜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⑥ 가스레인지의 산소의 양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빨간색 불꽃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절하여 불꽃이 파랗게 되도록 한다.

⑦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대한가스공사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시가스를 점검한다.

8) 청소기

① 바닥에 있는 큰 쓰레기는 먼저 치우고 청소기를 사용한다.

② 청소기 입구에 있는 바닥상태 조절기를 사용하여 용도(마루, 카페트, 장판)에 맞게 청소기를 사용한다.

③ 청소기 속에 있는 필터가 가득 차서 흡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필터를 교체하면 개끗하게 청소된다.

④ 구입시 내장되어 있는 필터를 다 사용했을 경우 청소기 모델명을 적어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필터를 구입한다.

9) 비디오

① 전원플러그를 사용할 때 손에 물기가 없도록 한다.

② 전원키를 누르고 원하는 조작 단추(버튼)를 사용하며 버튼을 조작할 때는 항상 정지 버튼을 누른 후 사용한다.

③ 화면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화면을 정지하고 테이프와 비디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테이프에 이상이 없다면 헤드클리너를 사용한다. 헤드클리너는 비디오의 헤드를 청결하게 해 주는 것으로 비디오와 같이 넣어서 작동시키면 헤드가 청소된다.

④ 고장시 가까운 대리점이나 제품회사의 서비스센터에 문의한다.

2. 교통수단 이용

♣ 우리는 이동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며,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 하고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 있다.

1) 버스

① 버스에는 일반버스, 좌석버스, 도시형 좌석버스, 마을버스가 있으며 요금이 각각 다르다.

② 버스종류와 이용자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2001년 12월 현재요금)

- 일반버스 : 초등학생 250원, 중·고등학생 410원, 일반 600원
- 좌석버스 : 1,200원
- 도시형 좌석버스 : 1,300원
- 마을버스 : 300원

③ 현금 이외에 국민패스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을 이용할 때보다 할인이 된다.

④ 소액권의 현금을 낼 때는 차안에 거스름돈이 준비되어 있다.

⑤ 정류장마다 안내방송이 나오므로 내릴 때 미리 벨을 눌러야 한다.

⑥ 버스의 경우 앞문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하차한다.

⑦ 일반버스는 경로석이 지정되이 있으므로 노약자를 위하여 좌석을 비워두어야 하며 노약자의 승차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예의이다.

⑧ 승차 중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한다.

⑨ 버스운행시간의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알아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⑩ 버스정류소와 동네를 순회하는 마을버스의 노선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2) 지하철

① 정액권은 학생 20%, 일반 10%의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된다.

② 국민패스카드, 교통카드를 이용할 시 요금에 있어 할인을 받는다.

③ 행선지를 가기 전에 지하철 노선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④ 지하철을 탈 때에는 안전석 밖에서 출입구 양 옆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 탄다.

⑤ 지하철 내의 노약자, 장애인석은 비워둔다.

⑥ 대부분의 지하철에는 계단이 아닌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한다. 바쁜 사람을 위해 왼쪽은 비워 두고 오른쪽으로 선다.

⑦ 첫차와 막차시간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⑧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할 경우에는 유실물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1·2호선 시청역 02-753-2408~9
- 3·4호선 충무로역 02-2271-1170~1
- 국철구간 구로역 02-869-0089
- 5호선 왕십리역 02-2298-6767
- 7호선 태릉입구역 02-94-6767

3) 버스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전화번호	운행시간	찾아가는 길
강남 터미널(경부선)	02-535-4151~9	06:00- 익일 02:00	지하철 : 3호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역
강남 터미널(호남, 영동선)	02-592-0050~4		
남부 터미널	02-521-8550	06:00- 23:00	지하철 : 3호선 남부터미널 역
동서울 터미널	02-446-8000		지하철 : 2호선 강변역
상봉 터미널	02-5501~5		지하철 : 7호선 상봉역

4) 기차역

역이름	전화번호	역이름	전화번호
서울역 • 경부선 매표 • 호남선 매표 • 장항선 매표	02-392-7788 02-392-7815 02-752-4251 02-364-7841	용 산 역	02-378-0540 02-798-6628
		청량리역	02-966-0018
		성 북 역	02-917-7445

3. 동사무소 · 구청 민원

1) 동사무소 민원안내

(1) 전입

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② 신고는 세대주 또는 이사오는 본인이 한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신고서의 서명만으로 가능하지만 세대원이 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하다.

③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에도 변경된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주소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2) 주민등록증

①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으로 합당하게 주소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며, 만 17세가 되면 그 다음 달의 1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신청을 한다. 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준비물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장과 학생증(학생증이 없으면 통장확인 날인)과 신청서이다.

③ 재발급

-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

계 수수료 10,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여기서의 10,000원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재발급 비용이다.

-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반환하고 재신청을 해야 한다.

(3) 인감

인감증명이란 신청자가 관할 주소지 동·읍·면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신고(등록)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공증하는 것이다.

〈1〉 신고

①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서면신고로 대신하며 보증인 2인 이상의 인감이 날인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미성년자가 인감을 등록할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인감증명은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3〉 본인이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도장과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의 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4〉 인감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등록시나 본인 방문시 특기란(본인 외 발급금지, 처 외 발급금지 등)을 설정해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4) 호적

국민의 혈연적 관계를 파악하는 제도이다.

〈1〉 출생신고

① 주소지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

예 : 2000년 7월 14일 출생 - 2000년 8월 13일까지 신고

② 준비물은 병원 출생시 출생증명서, 자택 출생시 증명인의 인간첨부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가 첨부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③ 신고 의무자는 원칙상 부·모이며 예외적으로 호주, 동거친족,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를 포함한다.

〈2〉 사망신고

① 주민등록지, 본적지 시·구·읍·면에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

② 준비물은 사망진단서, 검안서이다.

자택에서 사망시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호주, 동거자이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④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3〉 혼인신고

① 남자는 만 18세이상,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신고는 남편, 처의 본적지 또는 현재 건주하고 있는 시·구·읍·면에 한다.

③ 준비물은 호적등본 각 2통이다.

④ 혼인신고에 의하여 부부성실의 의무, 정조, 부양의무 등이 발생한다.

(5) 세무

동사무소에서 하는 세무관련 주요업무는 각종 세무증명서 발급 및 세금고지서의 재발행이다.

①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금, 외국에 이주 또는 체류시 필요

하다.

②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해 주며 용도는 ①과 같다.

③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대출용, 보증용으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 증명하는 것으로 체납이 되어 있거나 과세사실이 없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④ 본인신청시 신분증, 제3자 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위임했다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⑤ 5년간 주소지에 계속 거주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⑥ 5년 이내 주소 이동이 있을 경우 전 주소지에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 발급한다.

⑦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이다.

(6) 대형 폐기물

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 기타물품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 경우 동사무소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하고 집 앞에 두면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간다.

② 신고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신고시 처리업체에서 3일 이내에 수거해 간다.

③ 주요품목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냉장고 : 4,000원~8,000원
- T V : 3,000원~5,000원
- 세탁기 : 3,000원
- 장 롱 : 10,000원~15,000원
- 책 상 : 4,000원~7,000원
- 피아노 : 15,000원

(7) 사회복지

〈1〉 장애인복지

① 장애인은 등록신청을 함으로써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은 증명사진 3장과 함께 동사무소에서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②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 1대가 해당된다.
- 대상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이다.
- 준비서류는 등록장애인 사진 2매,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이다.
- 고속도로통행료가 50% 할인된다.

③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이 할인되고,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2〉 경로연금

① 대상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중 가구당 4,000만원 이하의 재산과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403,000원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 : 80세 이상 월 50,000원, 80세 미만 월 40,000원
- 일반저소득 대상자 : 전액지급자 월 30,000원
  감액지급자(부부 중 1인) 월 22,500원

③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호적등본(재적등본), 소득, 재산관련서류(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이다.

〈3〉 노인교통수당

① 대상은 65세 이상(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며 신청자에게만 지급한다.

② 구비서류는 통장과 주민등록증이다.

③ 지급금액은 분기당 30,000원(월 10,000원)이다.

④ 지급시기는 매분기초 20일이다.

〈4〉 모자복지, 부자복지, 소년소녀가장 등과 관련된 복지업무도 하고 있다.

2) 구청 민원 안내

주민등록, 인감, 호적에 관한 업무는 동사무소와 같다.

(1) 보건소

〈1〉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증 제시 ⇒ 민원실 접수 ⇒ 내과·치과 등 치료 ⇒ 수수료

② 수수료 내역

- 3일분 약처방 1,100원, 5일분 약처방 1,300원, 7일분 약처방 1,600원
- 간염검사 1,400원, 당뇨검사 1,100원, 간기능검사 1,100원
- B형간염 5,000원(10세이상 5,000원, 10세 미만 2,350원), 일본뇌염 2,400원
- 장티프스(먹는 약) 3,190원, 유행성 출혈열 7,700원, 인플루엔자 4,750원

〈2〉 65세 이상 및 장애자증명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3〉 보건소는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다.

(2) 상수도 관련

〈1〉 상수도 누수에 따른 조치 및 신고요령

① 수돗물이 누수되면 누수된 것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누수여부를 점검하면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다.

② 집안에서 누수여부를 탐지하는 요령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후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를 살펴본다.
- 수도꼭지를 잠가도 수도계량기의 빨간 별 모양의 바늘이 돌아가면 누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③ 누수 때의 처리방법

- 수세식 변기, 물탱크, 벽 배관, 지표배관부분, 하수맨홀, 수도꼭지 등을 확인하여 누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도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한다.

④ 누수지점을 알 수 없을 경우 각 수도사업소로 신고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⑤ 누수수리공사에 따른 비용부담

- 시 부담은 배수관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이다.
- 사용자부담은 수도계량기 이후의 옥내에서 발생된 제반공사비이다.

〈2〉 수도관 동파 예방

겨울철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보온이 되지 않으면 얼거나, 파손되어 장기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최소 11,35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량기 박스에 스티로폴이나 천 등으로 채우고,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도 감싸준다.

(3) 민원 취급

〈1〉 문화/복지

① 음반 비디오 판매업자·대여업자·출판사·인쇄소 등록, 변경, 폐업에 관한 사항 신고

② 공연신고

③ 의례업소 등 영업신고

④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신청

⑤ 장애인 자동차 LPG사용신청서 발급

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사망자 처리 및 묘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업무

⑦ 장의사, 결혼예식장 및 상담소, 보육시설, 모자보호시설 관련 업무

〈2〉 병역

①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유예신청

② 징병검사, 징병 등 병사 업무와 예비군 관련사항

〈3〉 세무

① 부동산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도시계획세, 기타등록세, 법인세, 지역개발세 등 업무

② 차량취득세, 주민세, 차량등록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등 업무

〈4〉 지역경제

담배소매업, 석유·윤활유 판매업, 주유소, 양곡매매업, 공장액화석유가스 사용, 취업정보 등 업무

〈5〉 토지/건축

주택건설사업 승인, 주택조합설립 인가, 공동주택 관리, 무허가건축물신고의 업무

〈6〉 환경위생

① 배출시설·유독물·일반·산업폐기물 운반 등 관련 업무

② 쓰레기·분뇨처리, 화장실 개조 등의 업무

4. 국제전화 이용

1) 국제자동전화(I.D.D) 이용방법

001 또는 002(국제자동전화 식별번호)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가입

자 번호

㉮ 일본〈81〉, 도쿄〈3〉, 263-1234에 통화하고자 할 때

001 또는 002(국제자동전화 식별번호)+81(국가번호)+3(자동번호)+263+1234(상대방 전화번호)

2) 국가번호

알래스카 1	알제리아 213	아르헨티나 54	호주 61	오스트리아 43	방글라데시 880
캐나다 1	칠레 56	콜롬비아 57	덴마크 45	이집트 20	이디오피아 251
하와이 1	홍콩 852	헝가리 36	인디아 91	인도네시아 62	이란 98
일본 81	요르단 962	케냐 254	대한민국 82	쿠웨이트 965	레바논 961
모나코 33	모로코 212	미얀마 95	네팔 977	네덜란드 31	뉴질랜드 64
페루 51	필리핀 63	폴란드 48	포르투갈 351	루마니아 40	사이판 670
스페인 34	스리랑카 94	수단 249	스웨덴 46	스위스 41	시리아 963
영국 44	우루과이 598	미국 1	우즈베키스탄 7	베네주엘라 58	베트남 84
버뮤다 1	볼리비아 591	브라질 55	불가리아 3590	프랑스 33	독일 49
그리스 30	괌 671	이라크 964	아일랜드 353	이스라엘 972	이탈리아 39
리비아 218	마카오 853	말레이시아 60	멕시코 52	나이지리아 234	노르웨이 47
파키스탄 92	파나마 507	사우디아라비아 966	싱가포르 65	소말리아 252	남아공화국 27
타이완 886	태국 66	터키 90	우크라이나 7		

5. 미용실 이용

♣ 미용실은 머리의 커트, 염색, 파마 등으로 머리모양을 바꾸려고 할 때 이용하는 곳이다.

1) 이용방법

① 자신이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결정한다.

② 미용실에 있는 미용사와 자신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상의한다.

③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종류의 잡지를 볼 수 있다.

④ 머리를 감겨주는 곳도 있다.

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복지관이나 복지관과 연계된 미용실을 이용하면 저렴하다.

⑥ 머리길이와 숱에 따라 파마비용이 차이가 난다.

⑦ 아침 12시 이전에는 파마비용이 할인되는 곳도 있다.

⑧ 대부분의 업소에서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 이용회수를 채우면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⑨ 파마를 하려면 린스는 하지 않고 미용실에 간다.

⑩ 면도는 안된다. 면도를 원하면 이발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⑪ 남자도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⑫ 유명 미용실은 이용료 이외에 서비스 비용도 받는다.

⑬ 미용실에서 신부화장과 피부관리를 해주기도 한다.

⑭ 지역상가 안내책자를 이용하면 미용실의 위치, 전화번호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⑮ 주말에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평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⑯ 지역마다 정기휴일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의사항

① 이발소의 경우 퇴폐이발소를 조심하여야 한다. 이용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 대부분 조명이 어둡고 음침하므로 퇴폐업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② 카드를 받는 곳도 있으며 이때 청구금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③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소지품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④ 미용실에서 시술하거나 소개하는 성형수술은 조심하여야 한다.

⑤ 미용실을 장기간 이용시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먼지와 머리카락이 많이 날려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

6. 쇼 핑

1) 백화점

(1) 이용방법

① 상품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어 쇼핑하기 쉽다.

②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회원카드를 이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에게 매달 할인쿠폰을 보내준다. 3개월까지는 무이자로 할부가 가능하다.

③ 백화점 주변은 교통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이나 지역마다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④ 백화점내의 주차장은 구매영수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쇼핑시 문의사항은 1층 출입구의 안내원에게 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

⑥ 백화점마다 정기휴일이 다르다.

⑦ 정기휴일 전날 식품매장의 상품가격은 거의 반액으로 판매되니 이 기회를 이용하면 경제적이다.

⑧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면 일반학원보다 수강료가 저

렴하다.

⑨ 가족이 함께 쇼핑하면 좋다. 1층 안내소에서는 유아를 위해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⑩ 이월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면 보다 경제적이다.

⑪ 세일기간을 이용하면 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⑫ 백화점카드, 각종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⑬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봉투 안 쓰기 운동을 하므로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회용봉투는 소액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며 다시 가져가면 현금으로 환불된다.

(2) 주의사항

① 백화점에서 구입한 브랜드 상품은 구매한 백화점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 반품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② 백화점 회원카드는 현금과 같은 것이므로 분실하지 않아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 즉시 백화점에 신고해야 한다.

2) 할인매장

(1) 이용방법

① 각 층마다 구입한 상품의 물건값은 한꺼번에 지불한다.

② 본인이 직접 상품을 포장해야 한다.

③ 묶음으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보다 저렴하다.

④ 쇼핑카트는 도난방지를 위해 동전을 넣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사용 후 돈은 반환된다.

⑤ 소지품 보관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⑥ 충동구매를 하기 쉬우므로 구입물품 목록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⑦ 할인매장마다 가격차이가 크므로 구매 전에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⑧ 식품매장은 시간대에 따라 진행되는 깜짝세일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

⑨ 매장마다 개·폐점 시간이 다르다.

⑩ 할인매장마다 발급하는 자체카드를 이용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⑪ 회원카드, 각종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⑫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봉투 안쓰기 운동을 하므로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회용봉투는 소액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며 다시 가져가면 현금으로 환불된다.

(2) 주의사항

① 도난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물건은 배달되지 않는다. 배달을 원하는 경우 일정 배달료를 지불해야 한다.

3) 시장(수퍼마켓)

① 새벽시장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② 간단한 생필품은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③ 특성화된 시장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④ 지역정보지나 광고지에 부착된 할인쿠폰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⑤ 아파트 단지 내에 정기적으로 서는 장을 이용하면 신선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⑥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슈퍼에서는 현금만 받는다.

⑦ 시장은 정찰제가 아니므로 물건값을 깎을 수 있다.

7. 우체국 이용

1) 편지, 소포, 전보, 등기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업무도 처리한다.
2) 각종 공공요금을 낼 수도 있다.
3)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 고품질의 산지 특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4) 소포를 부치는 경우 포장용지와 끈이 우체국 내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 우편봉투의 규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6) 지역별로 우체통의 우편물 수거시간이 다르다. 보통 1일 2회 수거해 간다.

8. 대중목욕탕 이용

1) 근처 목욕탕의 이용료, 정기휴일, 이용시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
2) 남탕의 경우에는 수건, 때수건, 비누 등이 비치되어 있다.
   남탕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면실이 있다.
3) 청결관리사(때 밀어 주는 사람)가 있어 유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여탕의 경우 마사지도 해주며 가격은 조금 비싸다.
4) 탕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누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5) 비치된 드라이가 1회 1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며 2~3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6) 개인 사물함에 옷뿐만 아니라 신발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7) 음료수 판매대가 있으며 음료수 값은 사물함 열쇠를 맡긴 후 나중에 지불한다.
8) 목욕탕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9) 사우나의 경우 부대이용 시설이 많지만 목욕탕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10) 귀중품은 목욕전에 카운터에 보관한다. 카운터에 보관하지 않고 분실시 주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11) 목욕탕 내의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2) 고온의 한증막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 가능하며, 임산부나 노약자 등은 위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13) 목욕탕 안에서 절대 빨래를 해서는 안된다.

9. 분리수거와 쓰레기봉투 사용

1) 종이, 빈병, 알루미늄(고철), 플라스틱, 옷이나 이불, 스치로폴 등의 쓰레기를 구분해서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아파트는 단지 내에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다.
2) 병이나 우유팩 등은 세척 후 건조해서 배출한다.
3) 종이류(폐지)와 빈병은 현금이나 휴지 등으로 교환해 준다.
4) 깨진 병이나 유리는 잘게 부수어 전용봉투에 버린다.
5)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날에 함께 하면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6) 쓰레기 봉투는 지역(구)마다 다르며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쓰레기 봉투는 슈퍼나 판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8) 쓰레기 봉투는 리터(5ℓ, 10ℓ, 20ℓ, 50ℓ)당 가격차이가 있다. 작은 용량은 묶음판매만 하며 대용량은 낱장 구입도 가능하다.
9) 가정에서는 작은 용량(10ℓ)의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위생상 좋다.
10) 물기가 있는 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 봉투에 넣어 버린다.
11) 쓰레기 봉투는 밀봉해서 배출해야 하며 규격선을 넘지 않도록 쓰레기를 담는다.

12) 쓰레기 배출시간이 거주지역마다 다르다.

13) 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품목에 따라 신고필증 비용을 지불하면 처리업체에서 3일 이내에 수거해 간다.

14) 가전제품이나 대용량 물건을 폐기할 때는 중고물건을 수거해 가는 곳을 이용하면 폐기물 처리비가 절약된다.

15)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때에는 과태료가 징수된다.

10. 은행 이용

1) 은행업무는 번호표를 뽑은 순서대로 처리된다.

2) 간단한 입·출금은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① 창구에서는 수표발행 수수료를 받는다. 현금지급기에는 수표를 출금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② 수시로 통장의 입·출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은행마감시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용시간 : 오전 8:00~오후 10:00 (※ 은행마감시간 - 오후 4:30)

④ 다른 은행으로도 송금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3) 외국돈을 환전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서는 환전시 할인혜택 및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4)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창구에서 송금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5) 텔레뱅킹 사용권한을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6) 텔레뱅킹 이용방법은 은행원과 상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

① 텔레뱅킹은 은행업무를 전화를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은행에 직접 가는 수고를 덜어 준다.

② 송금시 수수료가 저렴하다.

③ 송금, 잔액확인, 입출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공과금 납기일을 넘기기 쉬우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동이체를 하면 공과금이나 보험료, 적금 등 은행에 가지않고 자동으로 통장에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자동이체'라고 한다.

9) 다른 은행에 보험, 적금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를 시키면 할인혜택이 있다.

10) 현금카드 및 직불,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① 현금카드로는 입·출금, 자동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직불카드는 통장의 잔고만 확인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③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은행잔고 확인이 필요한 직불카드와 달리, 카드회사에서 정한 한도액을 빌려주는 형태이며 그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는 은행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적금, 예금, 자동이체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심사한 후 발급된다.

11)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이동할 때 은행의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12) 은행업무가 혼잡한 시간을 피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13) 은행에 따라 여러 종류의 티켓(예: 기차표 예매)을 구입할 수도 있다.

14) 출금청구서 작성이 미숙할 때에는 은행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기타 은행업무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5) 카드 및 통장, 도장 등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해당은행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1. 병원 · 약국 이용

1) 병 원

(1)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당일에는 일반진료비를 내고 그 다음날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보험적용을 받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도 있다.

(2) 특정진료(특진)는 비용이 추가되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진료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시간 후에는 응급실, 야간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종합병원은 오후 4시까지이다.

(4) 12시 이전에 접수를 해야 당일진료가 가능하다.

(5) 진료를 받기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번호표를 뽑은 후 진료순서를 기다린다.

②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진료신청서를 작성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③ 본인의 순서가 되면 건강보험증, 진료신청서, 진찰권을 제시하고 진찰료를 지불한다. 진찰권은 처음 병원에 갈 때 병원에서 지급되며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는 지참해야 한다.

④ 해당진료과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름을 부르면 진찰실로 들어간다.

⑤ 진료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납을 한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다. 의약분업으로 진료는 병원에서, 약의 조제는 약국에서 한다.

⑥ 진료가 끝난 후 다음 진료시간을 예약하고 가면 편리하다.

(6)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 방문 시 동반을 삼가

는 것이 좋다.

2) 약 국

(1)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2) 병원이나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다.

(3) 소화제, 두통약 등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4) 처방전과 조제된 약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5) 가정에는 상비약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6) 약국마다 정기휴일이 다르다.

(7)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복용하면 위험하다. 약을 구입할 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12. 화장품 이용

1) 화장품 구매시 점수가 누적되는 쿠폰제를 활용하여 사은품 혜택을 받도록, 이용하는 가게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

2) 화장품은 자신의 피부타입과 피부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구입전에 피부측정을 하도록 한다.

3) 매장 내에 견본품을 비치해 두고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해 본 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화장품을 선택한다.

4) 가게마다 가격차이가 많으므로 구매 전에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5) 화장법을 교육해 주는 곳이 있으며 무료이다.

6) 화장품은 기능에 따라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으니 사용 전에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보도록 한다.

7)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화장을 지우는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8) 때로는 화장품가게에서 피부관리도 해준다.

9) 화장품 용기는 깨끗한 손으로 다루고 한번 덜어낸 화장품은 남더라도 다시 넣지 않는다.

10) 뚜껑은 반드시 닫고 파우더나 트윈케이크의 스폰지, 브러시를 깨끗하게 관리한다.

11) 얼굴에 바르는 것인 만큼 화장품의 유통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12) 간단하게 화장하는 방법

(1) 세 면

① 아이새도우

너무 진하거나 야한 색을 칠할 경우에는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부색, 머리카락의 색, 옷의 색 등에 맞추어 색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② 립스틱

아이새도우와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고 입술형에 따라 입술선을 수정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13. 음식점 이용

1) 셀프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주문과 동시에 음식값을 지불하고 자신이 주문한 것을 스스로 가져다 먹는 방법을 말한다.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곳(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파파이스, 케이에프씨 등)이 있다.

2) 셀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은 식사 후 용기를 본인이 지정된 곳

에 가져다 놓는다.

3) 셀프서비스가 가능한 식당에서는 일부 음료(콜라, 사이다, 커피)는 한번 지불하면 여러 번 먹을 수 있다. 이럴 때 점원에게 "리필해 주세요(다시 채워 주세요)."라고 말하면 된다.

4)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대부분 음식을 먹은 후 음식값을 계산하지만 때로는 먼저 돈을 지불하는 곳도 있다.

5) 백화점내의 몇몇 식당은 주문하는 곳과 음식을 받는 곳이 다르므로 티켓을 구입한 후 해당 음식점에 가서 티켓을 주고 음식을 받도록 한다.

6) 어떤 음식점은 반찬을 추가로 주문시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

7) 뷔페식당은 여러 음식을 자신의 식성에 따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8) 뷔페식당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그릇은 종업원들이 수거해 가므로 식탁 위에 올려 놓으면 된다. 호텔은 봉사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9) 흡연을 금하는 식당도 있다.

10) 음식을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해 주는 곳도 있다. 중국집, 피자집, 분식집 등

11) 음식점마다 할인카드와 쿠폰을 발행하는 곳이 있으므로 모아두었다가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 예약제로 운영되는 음식점도 있으며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기도 한다.

13) 주위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서로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은 되도록 남기지 않는다. 어떤 곳은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 9 장 생활의 지혜

1. 살림의 지혜

1)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지혜

(1) 가스레인지 기름때를 없애려면

가스레인지 기름때는 베이킹 파우더를 묻혀 닦으면 깨끗이 제거되고, 비닐 장판의 더러움은 베이킹 파우더를 뿌리고 그 위에 물을 조금 뿌려 때를 불려 닦는다.

(2) 리모콘을 깨끗하게 쓰려면

리모콘은 먼지나 손때가 묻어서 더러워지기 쉽다. 리모콘을 랩으로 싸 보자. 랩은 얇기 때문에 리모콘의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랩만 바꿔 감아주면 된다.

(3) 다리미 바닥의 검은 때를 제거하려면

다리미의 얼룩은 양파를 얼룩 부위에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아니면 칫솔에 치약을 묻혀 닦은 후 물로 닦아내면 된다. 평상시 다리미 사용 뒤 마른 천으로 닦아서 보관하면 까만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

(4) 무거운 짐을 소포로 보낼 때는

소포를 부칠 때 6kg이 초과되면 요금이 더 부과되고, 읍 단위 이하는 배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6kg이 초과되는 소포는 둘로 나누어 부치는 것이 유리하다.

(5) 배수구의 냄새를 없애려면

주방용 솔로 찌꺼기 거름망을 씻어낸 다음 식초와 물을 같이 흘려보내면 냄새와 세균이 제거된다.

(6) 싱크대가 막혔을 때는

괴어 있는 물을 먼저 퍼낸 후 소다나 베이킹파우더 작은 것 1봉지를 넣고 식초 중간 병 1개를 그 위에 붓는다. 1분 정도 후에 거품이 나면서 막힌 구멍이 뚫린다.

(7) 쓰레기 봉투의 악취를 제거하려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아직 안 찼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면 신문에 물을 적셔 덮어둔다. 신문이 냄새를 빨아들여 악취가 자연스럽게 제거된다.

(8) 집안의 악취를 제거하려면

쓰레기통에 알콜을 뿌려주고, 전자레인지도 알콜을 묻힌 헝겊으로 닦아주면 깨끗이 청소가 된다.

2) 세탁 및 옷 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혜

(1) 검정색 옷의 색깔이 퇴색되었을 때는

옷의 재질이 면일 경우에는 헹구는 물에 맥주를 약간 넣어주고 모(毛)일 때는 시금치 삶은 물로 빨래를 해 본다.

(2) 남은 비누조각을 유용하게 이용하려면

남은 비누조각을 모아서 헌 스타킹 안에 넣고 그것을 양변기 물통에 넣어두면, 물을 내릴 때마다 변기 청소가 되어 깨끗하고 향긋한 냄새까지 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3) 물이 빠지는 지(탈색되는 지)를 간단히 검사하려면

흰 타월 끝에 세제액이나 표백제를 발라 두었다가 빨래할 것을 문질러 본다. 문지르는 부분은 옷 밑단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좋다. 이때 타월에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는다면 안심해도 된다. 만일 색깔이 묻어 나온다면 다른 옷들과 따로 빨도록 한다. 물이 빠질까 걱정스러울 때는 꼭 이런 체크를 해 보자.

(4) 색이 잘 빠지는 옷을 세탁하려면

면제품일 때는 물 1ℓ에 소금 두 숟갈의 비율로 타서 그 물에 세탁을 하고, 털이나 견직물일 때는 식초를 두 숟갈 정도 탄 물에 세탁을 하면 색이 빠지지 않는다.

(5) 세제를 아끼는 방법

때는 거품으로 빠진다. 빨래를 넣기 전에 물에 세제를 풀고 1~2번 정도 회전시켜 거품을 충분히 낸 후 빨래를 넣자. 세제를 조금만 넣어도 빨래가 깨끗해진다.

(6) 세탁기 속의 물때를 제거하려면

한달에 한 번 정도 세탁기에 물을 가득 넣고 식초 한 컵을 부은 후 세탁기를 회전시킨다. 혹은 더운물을 가득 넣고 식초 1/2컵, 옥시크린 1/4컵을 넣어 돌린 후 하룻밤 그대로 두었다가 닦는다.

(7) 스웨터를 탈수할 때

스웨터의 물기는 손으로 눌러 뺀 다음에 타월 사이에 넣고 타월을 넷으로 접는다. 그리고 나서 비닐 봉지로 싸서 빨래판같이 평평한 것 밑에 둔다. 타월이 물기를 빨아들이므로 상당한 탈수 효과가 있다.

세탁기로 탈수할 때는 그물망에 넣어서 20~30초 동안만 돌려준다. 물기를 완전히 빼려고 했다가는 스웨터가 단단해진다.

(8) 알아두면 좋은 얼룩제거 방법은

〈1〉 얼룩의 종류

① 수용성 얼룩 : 커피, 홍차, 술, 간장, 소스, 우유, 혈액, 과일즙 같은 것은 물로 없앨 수 없다.

② 지용성 얼룩 : 루즈, 볼펜, 버터, 마아가린, 마요네즈, 초콜렛, 기름 같은 것은 세제나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불용성 얼룩 : 추잉껌, 페인트, 먹물 같이 없애기 힘든 것

얼룩이 생겼을 때는 먼저 이상의 세 종류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파

악해야 한다.

〈2〉 커피, 홍차가 묻었을 때

그 즉시 처리해야 한다. 빨리 처리하면 그냥 물만 묻혀도 지워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잘 지워지지 않는다. 손수건에 물을 묻혀 얼룩진 부분을 두들겨 뺄 수 있을 만큼 뺀 다음에 물로 씻는다.

〈3〉 루즈가 묻었을 때

알콜에 적신 천으로 닦는다.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풀어서 그 부분만 빤다. 루즈의 종류의 따라서는 벤젠으로 간단히 지워지는 것도 있다. 또 한 가지, 버터를 그 부분에 조금 바른 다음 손으로 가볍게 문지른다.

〈4〉 우유가 묻었을 때

우유 얼룩에는 따뜻한 물은 금물이다. 우유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사용할 경우 단백질이 굳어져 얼룩이 잘 안 빠지게 된다. 얼룩이 생겼을 때는 곧 찬물에 빤다. 잘 안 빠지면 중성 세제를 면봉에 묻혀서 두들겨주면 된다.

〈5〉 과일즙이 묻었을 때

금방 닦아낼 때는 젖은 수건으로 두들겨 주거나 그 부분만 씻어주면 없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잘 지워지지 않는 갈색 얼룩이 되어 버리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1컵의 물에 1작은술 정도 넣은 액체를 만들어 이 액체를 적신 천으로 두들긴다. 그리고 나서 물에 빤다. 그래도 얼룩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식초를 사용한다.

〈6〉 볼펜 잉크가 묻었을 때

알콜이나 신나를 가제에 묻혀서 두들겨 빼본다. 혹은 볼펜 자국이 난 부분에 물파스를 바른 뒤 바로 비누칠을 해서 비벼 빤다. 여러 번 헹구어 주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7〉 매직이 묻었을 때

주택용 세제를 면봉에 묻혀서 두드린다. 그런 다음에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서 빨아준다. 그대로 없어지지 않을 때는 표백제를 사용해서 세심하게 씻는다.

〈8〉 파운데이션이 묻었을 때

옷에 파운데이션이 묻었을 때 비눗물로 씻으면 오히려 얼룩이 번진다. 대신 알콜이 함유된 화장수를 이용해 얼룩에 톡톡 문질러 주면 파운데이션 자국이 쉽게 없어진다.

(9) 옷에 붙은 껌

① 비닐주머니에 얼음을 넣고 껌 위에 대서 식힌다. 껌이 단단해지면 손으로 조금씩 끈기있게 떼어낸다. 천이 상하지 않게 떼어낼 수 있다.

② 껌은 기름에 녹는다는 특성을 이용한다. 껌이 묻은 부분에 식용유를 발라 조금씩 녹여서 제거한다. 그런 다음, 기름 묻은 부분을 세제로 주물러 빤다.

③ 마요네즈를 발라서 주무르면 녹아서 없어진다. 그 후에 중성세제로 주물러 빨고 세탁기에 넣는다.

④ 샐러드 기름을 칫솔에 묻혀서 열심히 문지르면 부드러워진다. 마지막에는 부엌용 세제 같은 것으로 문지르고 나서 세탁기에 넣는다.

⑤ 껌을 잘못 깔고 앉아 옷에 붙었을 경우에 손톱 화장지우개(네일리무버, 아세톤)를 사용한다. 네일리무버를 솜에 묻혀 껌이 붙은 부분에 두드리면 없어진다.

(10) 옷의 정전기를 막으려면

옷의 정전기를 막으려면 옷을 목욕탕이나 세면대 등에 걸어 두었다가 입으면 된다. 또는 면으로 된 속옷을 받쳐입어도 정전기가 방지된다. 시중에서 시판하는 정전기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11) 호주머니에서 사탕이 녹았을 때

이럴 때는 무즙에 헝겊을 적시거나 무 자른 단면으로 두드리면 쉽게 없어진다.

(12) 흰 빨래를 더욱 하얗게 빨려면

흰 빨래를 더욱 하얗게 하려면 세탁시 설탕을 넣어본다. 설탕 한 스푼을 세제와 함께 넣고 세탁을 하면 하얗게 된다.

3) 옷 보관 정리의 지혜

(1) 옷장 속 습기를 제거하려면

옷장 속에 오래 두면 습기가 차는데 이때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못 쓰는 스타킹에 끼워 걸어두면 습기가 없어진다.

(2) 울니트가 손상되었을 때

① 보풀이 생겼을 때 - 면도기로 결을 따라 면도해 준다.

② 잘못 세탁해서 줄었을 때 - 암모니아수에 잠시 담가 둔다.

③ 소매, 목둘레가 심하게 늘어났을 때 - 늘어난 부분을 손질한 후 스팀다리미로 다림질해 준다.

④ 털이 누웠을 때 - 스팀다리미로 스팀을 쐰 후 세탁을 한다.

4) 부엌일에 도움이 되는 지혜

(1) 귤껍질의 사용법

귤껍질을 말려 가루 낸 것은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 생선구이를 한 후 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가루를 가스레인지 위에 뿌려주면 생선비린내가 없어진다.

(2) 그릇에 금이 갔을 때

접시나 찻잔에 금이 갔을 경우 냄비에 우유를 찰랑찰랑하게 붓고 금 간 접시나 찻잔을 넣은 다음 4~5분 정도 끓인다. 그런 다음 꺼내 보면 금이 간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단, 금이 간 즉시 해야 한다. 우유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3) 김치물이 든 플라스틱통을 깨끗이 씻으려면

김치물이 든 플라스틱통은 쌀뜨물에 하룻밤 담가둔다. 혹은 치약으로 닦아도 깨끗해지고 잡초를 뜯어다 통 속에 넣고 하루정도 놔두면 냄새가 제거된다.

(4) 냄비에 검게 타 붙은 음식을 없애려면

2~3일 동안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 완전히 마르면 검게 눌어붙었던 것이 저절로 벗겨지므로 냄비에 상처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없을 때라든지 장마철이어서 햇볕이 나지 않을 때는 드라이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탄 부분에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쐬어 1~2분 정도 건조시키면 벗겨져 나온다.

(5)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려면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 잘못하면 유리잔이 깨지는 수가 있다.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숟가락을 유리잔에 넣고 물을 부으면 물이 뜨거워도 잔이 깨지지 않는다.

(6) 입구가 좁은 그릇을 깨끗이 씻으려면

입구가 좁아서 손잡이가 달린 스펀지나 브러시로 씻어도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달걀 껍질로 이용해 본다. 평소에 달걀 껍질을 모아서 잘게 찧어 둔다. 그리고 이것을 물과 같이 입구가 좁은 그릇 속에 집어 넣는다. 속에 든 물이 거품을 일으킬 정도로 세게 잘 흔들어 주면 깨끗이 씻어진다.

5) 냉장고의 냉장실·냉동실 이용의 지혜

(1) 냉장실의 냉기가 잘 나오게 하려면

냉장실의 냉기가 통하는 통로는 반드시 비워두어서 냉기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또 이곳에 키가 큰 물건을 놔두면 냉기가 퍼지지 못해서 냉장고 속이 차갑지가 않다.

(2) 냉동을 할 때의 기본적인 포인트

① 냉동에 적합한 식품을 고른다.

식품 중에는 냉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다. 날 채소나 달걀, 두부, 곤약 같은 것. 고기는 그대로 냉동시켜도 되지만 가게에서 파는 것은 한 번 냉동시켰다가 해동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대로 냉동을 시키면 맛이 떨어진다. 밑간을 해서 냉동시키는 편이 낫다.

② 재료는 얇고 작게 만든다.

식품을 되도록 빨리 속까지 냉동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게, 작게 만들어야 한다. 나중에 요리를 할 때에도 작은 것이 편리하다.

③ 되도록 빨리 냉동시킨다.

천천히 냉동시키면 식품 조직이 부서져 맛이 떨어진다. 냉동을 잘 시키기 위한 포인트는 가능한 한 빨리 냉동시켜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처음에 냉동실 온도를 강으로 맞춰 놓고 냉동이 된 다음에 영하 18℃ 이하로 맞춘다.

④ 냉동시킨 날짜와 내용을 메모한다.

냉동실에 그냥 넣어 둔 채로 있으면 언제 냉동시킨 것인지를 알 수 없어진다. 냉동시킨 식품의 보존 기간은 보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1개월 정도가 한도라고 보는 것이 좋다.

⑤ 생선·고기는 반 해동, 채소는 그대로 가열한다.

원칙적으로 날 생선이나 고기는 반 해동시키고 나서 자연 해동을 시키고 채소는 해동시키지 않은 채로 곧 가열한다.

(3) 냉장고에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끓인 보리차나 국 등을 식혀서 넣지 않고 뜨거운 상태로 넣으면 냉장고 속의 온도가 올라가 그것이 다시 식으려면 모터가 풀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낭비된다. 그러므로 냉장고에 넣는 음식은 반드시 식은 것을 넣어야 하며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속의 온도가 높아져서 다른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다.

6) 기타 생활의 지혜

(1) 가구 냄새를 없애려면

새 가구를 장만하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까지 한다. 이때 식초와 소주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보자. 냄새가 금방 사라진다.

(2) 개미를 없애려면

개미가 나오는 구멍을 찾아 석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씻은 듯 없어진다. 또 부엌이나 방에 작은 개미가 줄줄이 기어다닐 경우가 있다. 이럴 땐 개미가 다니는 통로에 소금을 조금씩 뿌리면 며칠 후 개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3) 발 냄새를 제거하려면

스타킹(양말)을 빨 경우 물에 식초 몇 방울을 타서 빨면 스타킹의 발 냄새가 없어진다.

(4) 페인트 냄새를 없애려면

집 단장으로 페인트칠을 한 다음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양파 몇 개를 쪼개어 방 구석구석에 둔다. 그러면 냄새가 사라진다.

2. 조리의 지혜

1) 음식만들기를 도와주는 지혜

(1) 밥물을 실수로 많이 부었을 때

이럴 때는 압력솥 꼭지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 꼭지를 젖혀주면서 수증기를 빼주면 밥이 조금 꼬들해진다.

(2) 밥이 설었을 때

이럴 경우 술을 이용하는 것이며 다 끓인 상태의 밥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몇 개 내어 청주를 조금 뿌려준 다음 다시 취사 스위치를 넣거나 약한 불에서 5분 정도만 끓이면 고슬고슬 맛있는 밥이 된다.

(3) 비린내 나지 않게 생선을 구우려면

생선을 구울 때 깨끗이 손질해 얼려두었다가 접시에 밀가루를 담아 생선에 골고루 묻힌 후 기름 달군 팬에 굽는다. 불을 약하게 하여 신문지나 호일로 중간 뚜껑을 만들어 덮고 나서 냄비 뚜껑을 덮은 다음 구워 노릇하게 익으면 덮어놓은 뚜껑들을 다 열어 수분을 증발시킨다.

(4)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려면

찌개나 구이를 할 때 생선을 깨끗하게 손질한 뒤 우유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요리를 하면 비린내가 감쪽같이 없어진다.

(5) 자반 고등어를 짜지 않게 조리려면

간혹 시장에서 자반 고등어를 사서 바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구우면 너무 짜서 못 먹을 경우가 있다. 이때는 쌀뜨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다.

(6) 양파를 눈물 흘리지 않고 자르려면

양파는 자르기 전에 냉장고에서 차게 해두면 자극성분이 저온에서 억제되어 코에 매운 맛을 느끼지 않고도 잘 썰어낼 수가 있다. 시간이 급할 때는 냉동실에서 가볍게 얼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 시든 채소를 싱싱하게 되살리려면

시든 채소를 싱싱하게 만들려면 큰 그릇에 물을 붓고 식초 조금과 각설탕 2개를 넣고 그 속에 채소를 담가두면 된다. 채소가 선명한 녹색으로 되살아나면서 싱싱해질 것이다.

(8) 밥이 타서 냄새가 날 때는

밥이 탔을 때는 찬물 한 컵을 밥 위에 얹어두고 뚜껑을 닫으면 신기하게도 탄 냄새가 없어진다.

(9) 묵은쌀로 밥을 지으려면

묵은쌀로 밥을 지으면 윤기가 없고 밥맛도 떨어진다. 이럴 땐 쌀을 씻어 밥물을 맞춘 다음 식용유를 한 방울 떨어뜨린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밥맛도

몰라보게 좋아진다.

(10) 마늘 냄새를 예방하려면

한국음식에서 마늘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감초와 같지만 먹고 난 후에 냄새가 오래가는 단점이 있다. 이를 없애려면 마늘을 먹기 직전 우유를 먼저 마시면 우유 속의 칼슘이 마늘의 독특한 냄새를 없애준다.

(11) 김치가 너무 시었을 때는

김치가 너무 익어서 신냄새가 강하여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 신 김치독에 조개 껍질을 넣어두는 것이다. 얼마 지나면 김치의 신맛이 조금 덜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12) 냉동고기를 녹이려면

얼린 고기를 그대로 조리하면 열이 잘 통하지 않아 맛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 무리하게 빨리 녹이면 맛이 떨어지므로 냉동된 고기를 꺼낸 후 신문지 4~5장에 둘둘 말아서 조리대 위에 놓아둔다. 몇 시간 두면 고기가 알맞게 녹게 되고 고기 즙도 흐르지 않아서 맛이 변하지 않는다.

(13) 달걀을 요령 있게 삶으려면

달걀을 삶았을 때 중간에 달걀이 깨지면 식초를 넣는다. 그렇게 하면 속의 내용물이 나오지 않게 된다. 달걀이 깨지지 않게 미리 조치할 때도 소금이나 식초를 넣으면 알칼리가 초산에 잘 응고되어 깨지지 않는다. 껍질을 벗길 때는 물 속에서 벗기면 벗기기 쉽다.

(14) 돼지고기를 연하게 하려면

돼지고기를 연하게 하려면 핏물을 빼고 콜라에 30분 정도 담가둔다. 그 다음 물을 쪽 빼고 요리를 하면 돼지의 누린내도 없어지고 고기도 연해진다.

(15) 참기름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참기름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소금에 묻어둔다. 아무리 오래 되어도 금방 짠 기름처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2) 음식재료를 보관하는 지혜

(1) 고춧가루 보관하기

고춧가루를 보관할 때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 고춧가루에 랩을 씌우지 않고 1분 정도 가열한 후 보관하면 잡균의 번식을 막고 습기도 제거되어 장기간 고릇가루 향이 그대로 보존된다.

(2) 과자의 눅눅함을 방지하려면

병이나 진공팩 등에 먹다 남은 과자를 보관할 때는 각설탕 한 개를 함께 넣으면 과자의 눅눅함을 방지할 수 있다.

(3) 귤을 싱싱하게 보관하려면

상자에 신문지를 깔고 귤을 늘어놓은 다음, 그 위에 다시 신문지를 깔고 늘어놓는 식으로 반복한다.

(4) 두부의 물을 빼려면

조리하기 4시간 전에 채에 행주를 깔고 그 위에 두부를 올려두면 된다. 또는 신문지를 두껍게 접고 그 위에 요리용 종이를 몇 장 깐 다음에 두부를 올린다. 물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된다.

(5) 마늘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마늘을 잘못 보관하면 말라서 싹이 나고 쪼그라들게 된다. 이럴 경우 햇빛에 바싹 말려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물기 없는 병에 넣어 두고 쓰면 편리하다.

(6) 먹다 남은 밥을 보관하려면

남은 밥을 1회분씩 덜어서 랩이나 쿠킹호일에 싸서 얼려둔다. 필요할 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으면 방금 만든 밥처럼 된다. 데울 때는 밥 위에 얼음을 한 개 정도 얹어서 데우면 밥이 촉촉해진다.

(7) 소금의 습기를 방지하려면

식탁용 소금에 이쑤시개를 7~8개 넣어두면 나무가 습기를 빨아들여 습기를 방지 할 수 있다.

(8) 싹이 나지 않게 감자를 보관하려면

감자는 오래두면 싹이 나기 쉽다. 싹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문지에 감자를 싸고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오래도록 싱싱한 감자를 먹을 수 있다.

(9) 파를 오래 보관하려면

파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냉장실에 넣어두면 보관 기간이 3배나 연장된다.

3. 재활용 지혜

1) 우유팩으로 만들었어요

(1) 타월 정리 선반

우유팩을 몇 개씩 겹쳐 붙이면 타월 정리하기에 안성맞춤인 정리 선반이 만들어진다. 정리장에는 차곡차곡 접어넣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것만 꺼내 쓰기 쉬운데, 이 선반이 있으면 타월도 번갈아 가며 돌려쓰기 쉬워진다. 선반의 깊이에 맞추어 우유팩을 커터나 가위로 자른다. 선반의 크기에 맞춰서 우유팩을 몇 개쯤 겹쳐서 접착제로 붙인다. 겉을 한지나 영문 잡지, 자투리 천으로 싸면 한결 깔끔하고 예뻐 욕실에서의 장식 효과도 크다.

(2) 남은 음식 보관 용기

국이나 찌개가 한 그릇 정도 남았을 때, 냄비에 보관하자니 거추장스럽고 국그릇에 보관하자니 왠지 냉장고가 복잡해진다 싶으면 우유팩을 이용해 보자. 우유팩에 국을 따르고 랩을 씌우면 냉장고에 자리도 많이 차지하니 않고 보관하기 편리하다. 카레나 짜장소스 같은 것은 우유팩에 부어서 냉동보관하면 좋다. 그대로 꺼내어 우유팩 채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할 수도 있으며 팩을 찢어서 내용물을 냄비에 담고 데워도 좋다.

(3) 냉장고 정리정돈 상자

냉장고의 야채실은 깊어서 자칫하면 야채들이 쌓이고 눌려서 물러지기 쉽

다. 시금치나 파 등의 잎 야채들도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유팩의 윗 부분을 야채실의 깊이에 맞춰서 커터나 가위로 잘라낸다. 그런 다음 야채실의 깊이나 폭에 맞추어서 우유팩 몇 개를 이어서 테이프로 고정한다.

2)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만들었어요

(1) 비누통

나지막하게 잘라서 얇은 붓으로 가느다랗게 테두리선을 그리고 선을 따라 작은 꽃들을 그려 넣으면 예쁜 비누통이 된다. 밑바닥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수이다. 되도록 큼직한 페트병을 준비하도록 한다.

(2) 벽걸이 화분

병을 이용하여 정원에 화초를 키워보자.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든지 모양의 특징을 잘 이용하든지 아이디어를 짜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정원용 소품이 만들어진다. 병을 잘라 밑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고 뚜껑 있는 윗 부분을 사용한다. 뚜껑에 구멍을 뚫고 뒤집어 걸어보자.

4. 집에서 하는 고장수리법

1) 배수관에 문제가 생겼다.

우선 배수관이 막혔을 때, 세면대나 싱크대 구멍을 살펴보고 물길을 막을 만한 것이 없으면 배수관의 U자관을 떼어내고 솔에 화장실 청소용 세제를 묻혀 관 속에 집어넣은 다음 꼼꼼하게 문질러 오물을 깨끗이 훑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배수관에서 물이 샐 때는 배수관을 말린 다음 물을 흘려 보내면 새는 곳을 알 수 있다. 새는 곳의 나사를 스패너로 바싹 조여보아 그대로 물이 새면 이음새 부분의 고무가 닳았는지 살펴본다. 고무가 닳았으면 나사까지 함께 갈아준다. 비닐수선 테이프로 배수관을 감아주어도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샤워기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샤워기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물때가 끼어 샤워기의 구멍이 막혔기 때문이다. 우선 샤워기의 구멍 뚫린 부분을 떼어내어 목욕용 세제를 묻힌 스펀지로 금속 부분을 먼저 닦고 부드러운 칫솔로 구멍을 문질러 닦는다. 구멍이 잘 닦여지지 않아 막힌 구멍이 남았을 때는 바늘이나 핀으로 구멍을 일일이 뚫은 다음 다시 칫솔로 닦아 찌꺼기를 없앤다.

3) 손잡이가 헛돌아 열리지 않는다.

문손잡이를 돌려도 헛돌아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때는 손잡이와 손잡이를 연결하는 나사가 헐거워졌거나 손잡이 자체의 수명이 다 된 경우다. 우선 실내 쪽 손잡이 밑 부분에 있는 나사를 살펴보아 느슨해졌으면 단단히 조여준다. 그래도 헛돌면 나사를 뽑아 조금 더 긴 나사를 끼워본다.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헛 회전은 고쳐진다. 만일 긴 나사로도 되지 않으면 나사를 빼고 손잡이도 빼본다. 손잡이가 많이 닳아졌으면 새것으로 갈아 끼운다.

4) 열쇠구멍이 뻑뻑해졌다.

열쇠구멍이 뻑뻑해지면 열쇠를 끼우고 빼기가 힘들다. 이럴 때 부드럽게 하려고 기름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름에는 먼지가 잘 묻게 되므로 처음에는 좋아진 것 같아도 나중에는 더 뻑뻑해진다. 이럴 때 연필심을 곱게 갈아서 열쇠에 고루 묻힌 다음 열쇠구멍에 넣고 돌린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열쇠와 열쇠구멍이 모두 매끄러워진다.

5) 속으로 들어가 버린 나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오랫 동안 박힌 채로 두었던 나사를 뽑으려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 박혀 좀처럼 뽑혀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필사적으로 뽑으려 하면 더욱 더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다리미를 사용해서 나사를 뜨겁게

해 팽창시킨 다음에 잠시 식혀 수축되려 할 때 드라이버로 뽑으면 쉽게 뽑혀 나온다. 나사가 녹슬어 있을 때는 탄산 음료를 적신 천을 잠시 동안 나사에 대주면 헐거워진다.

5. 응급 처치

1) 예고 없이 일어나는 병의 증상과 응급생활

(1) 가슴에 예리한 통증이 온다.

심하게 운동을 했거나 무엇인가에 가슴을 심하게 부딪쳤을 때 또는 사고로 가슴 부위의 뼈가 골절되었을 때 가슴 통증이 있다. 심장 발작이나 협심증, 담석이 생겼을 때도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가빠지면 심장발작일 수도 있으므로 빨리 구급차를 부른다. 기다리는 동안 편안한 자세로 누워 되도록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게 한다. 심호흡을 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준다.

(2) 귀가 가렵고 아프다

목욕이나 수영을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면 후비지 말고 따뜻한 물병이나 따스해진 돌을 귀에 대어 귓속의 물기를 말려 준다. 귀가 가려우면 귓구멍 입구를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서 가려움증을 없애고, 아플 때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로 통증을 진정시킨다. 귀가 욱신욱신 쑤시고 귀를 살짝만 만져도 아프고 귓구멍이 막힐 정도로 붓거나 고름이 흘러나오면 외이도염이 심해진 경우이다. 또 감기를 앓고 있던 아기가 심하게 보채고 울며 귀를 비비고 잘 먹지 않으려 하는 등 평소와 다른 증세를 보이면 급성 중이염일 수 있다.

(3) 눈이 부석부석하고 피로하다.

우선 목을 좌우, 앞뒤로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다음에는 눈의 피로를 풀어 주는 지압법으로 눈썹머리 바로 위에서 꼬리 쪽으로 직선을 그리듯이 꾹꾹 누르면서 문질러 나간다. 30회 이상 실시한다. 다음에는 눈을 가만히

감고 눈 주위를 가볍게 누르면서 문질러 준다. 눈의 피로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진다. 다음은 눈 운동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눈을 힘주어 꼭 감고 천천히 다섯을 센 다음 눈을 뜬다. 얼굴은 움직이지 말고 눈동자만 움직여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을 본다. 각각 5초씩, 3회정도 반복한다.

(4) 다리에 쥐가 난다.

쥐가 나면 우선 그 부위를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쥐가 난 곳 바로 윗 부분을 끈질기게 주물러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게 하면 풀린다. 쥐가 난 쪽의 엄지를 세게 잡아당겨도 효과가 있다.

(5) 딸꾹질을 한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면 숨을 참았다가 한 번에 내뱉는 방법이 제일이다. 우선 마음을 편히 갖고 턱을 들고 가슴 가득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그대로 숨을 멈추고 30~40초 동안 견딘 다음 한꺼번에 숨을 내쉰다. 또는 종이봉투를 입에 빈틈없이 대고 숨쉬기를 하면 멈추게 된다. 그밖에 혀를 잡고 당기거나 설탕 한 술을 혀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효과가 있다. 물이나 얼음조각을 꿀꺽 마셔도 좋다. 어린 아기들은 따뜻한 곳에 눕히거나 찬물을 많이 먹여본다.

(6) 머리가 아프다.

감기같은 전염성 호흡기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머리를 다쳤을 때 두통이 있다. 그러나 갑자기 머리가 아픈 증세는 대개 한쪽 머리만 아픈 두통일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목을 좌우, 앞뒤로 움직여 주는 목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7)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프면서 열도 있고 콧물도 나는 등 증세는 비슷하지만 어디에 감염이 되었는지 무엇에 감염되었는지에 따라 치료를 달리 해주어야 하므로 우선 의사에게 보여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한다.

목이 아프면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소금물(따뜻한 물 1컵에 소금 1/2 작은 술)로 자주 목을 가셔준다.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

어 잘 먹지않게 되면 기운을 차릴 수가 없으므로 수프나 미음, 묽은 죽같은 영양이 좋은 유동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딱딱한 사탕을 빨아먹으면 목이 부드러워지며, 열이 나서 힘들어 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는 것도 좋다.

(8) 목이 뻐근하다.

잠을 잘 때 자세가 나빴을 수도 있고 독감에 걸렸을 수도 있다. 고열과 두통이 심하고 목 근육이 쿡쿡 쑤시면서 마비가 되는 등 염려되는 증세가 보이면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목덜미에 대주거나 따끈한 물 샤워를 목에 집중적으로 해주면 증세가 좋아진다. 목덜미 가운데 근육을 집어 당겼다 놓았다 하며 근육을 풀어 준 다음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좋다.

(9) 물집이 생겼다.

물집이 터지면 몹시 쓰리고 아프기도 하지만, 물집은 세균감염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하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소독거즈나 1회용 반창고를 붙여두면, 물집 속의 투명한 액체가 피부층을 스며들어 정상적인 피부가 된다. 만일 물집이 터지면 물집을 덮었던 피부를 소독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낸 다음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거즈로 환부를 덮는다.

(10) 배에 가스가 차고 거북하다.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토하거나 해도 심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럴 때는 음식을 먹지말고 물이나 보리차를 조금 마시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대개 나아진다. 뜨거운 물병을 배에 대거나 뜨겁게 데운 물수건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 뱃속의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속이 편하다.

(11)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

어깨가 결릴 때는 운동이나 마사지로 목덜미로 후두부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뜨거운 물수건 등으로 온찜질을 해주면 증세가 가벼워진다. 위궤양이나 고

혈압·당뇨병 같은 지병 때문이 아니라면, 나쁜 자세가 원인일 수도 있다.

(12) 코피가 난다.

대개의 코피는 곧 멈추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코피를 흘리면 우선 똑바로 앉히고 고개를 약간 숙이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콧망울을 꼭 잡고 5~10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멈춘다. 또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얼음주머니를 코에 얹어 혈관을 수축시켜도 좋다. 코피가 나면 대개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는데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누우면 코피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 오히려 좋지 않다. 코피에 고름이 섞여 있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코피가 잘 멎지 않으면 콧병이 생긴 것이므로 의사에게 보인다.

여절상식 한마디

■ 부부간의 호칭

집안에서 남편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기 부인을 지칭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자기 집이나 처가의 웃어른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는 '재댁'이라고 한다.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는 '안사람, 집사람, 아내'라고 한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위사람의 부인인 경우에는 '사모님'이라고 하며 그 이외에도 '부인'이라고 하면 무난하다. '마누라'라는 말은 지칭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애정어린 호칭으로 쓰는 말이다. 시댁의 어른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애비'라는 말을 쓴다. 남에게 지칭할 때는 '남편'이라고 하며 나의 남편은 나이에 따라 '주인어른, 바깥어른, 부군' 등으로 한다. 요즘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한다거나 '바깥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말이다. 아빠라고 하면 아이의 아빠인지 본인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니다. 또한 '바깥양반'은 남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완전히 틀린 말이다.

2) 준비해 두면 좋은 상비약과 의료비품

(1) 의료비품

면거즈, 소독거즈, 붕대, 압박붕대, 소독솜, 끝이 몽툭한 의료용 가위, 칼, 핀셋, 반창고, 일회용 반창고, 삼각건용 보자기, 면봉, 지혈대나 수건, 체온계, 얼음주머니, 핫팩, 손전등

(2) 바르는 약

소독용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스테로이드, 연고, 안티프라민, 파스, 벌레물린 데 바르는 약, 암모니아수, 액체 안약, 생리 식염수

(3) 먹는 약

두통약(아스피린, 타이레놀), 해열제(부루펜-시럽이나 좌약), 차멀미 방지약, 설사약, 제산제, 소화제, 구토제

여정상식 한마디

■ 품위있는 고객이 되려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대부분 셀프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카운터에 직접 가서 주문을 하고, 주문한 것이 나오면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까지가 셀프서비스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가 더 있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셀프서비스의 범위는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은 후에 빈 용기를 정해진 자리에 놓고 탁자까지 깨끗하게 닦아준다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셀프서비스를 실천한 고객이다. 셀프서비스하는 곳의 탁자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 있는 탁자들을 유심히 보자. 뒷정리를 하지 않아서 쓰레기들이 마구 널려져 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고객이 훌륭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품위있는 고객이다.

2001년 12월 15일 인쇄
2001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 통일부 하나원
Tel 031-670-9311~5
인 쇄 : 광 신 사
Tel 02-2277-4533